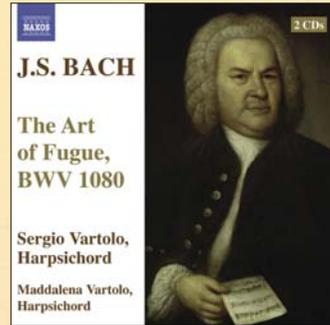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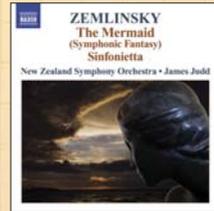
**NAXOS** 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 Naxos new releases



8.570577-78 [2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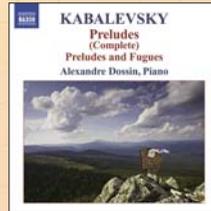
**JS바흐:**  
푸가의 기법 BWV1080  
세르조 바르톨로(cemb)



8.570240

첼린스키:  
신포니에타,  
교향환상곡(인어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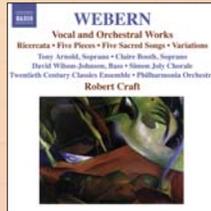
제임스 저드  
뉴질랜드 신포니 오케스  
트라



8.570976

카발레프스키:  
24개의 전주곡,  
6개의 전주곡과 푸가,  
4개의 전주곡

알렉산드르 도신(pf)



8.557531

베베른:  
성악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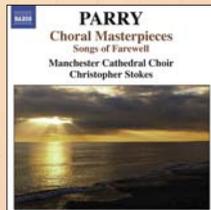
데이비드 윌슨 존슨(br)외  
로버트 크래프트  
필하모니아 외



8.559616

색소폰 사중주를 위한  
미국음악(아이브스, 히  
건, 빅슬러 외)

안시아 색소폰 사중주단



8.572104

패리:  
이별의 노래, 예루살렘,  
대전례, 대관식연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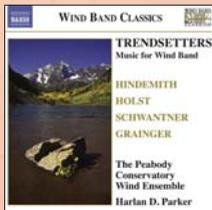
마크 롤린슨(br)  
제프리 마킨슨(org)  
크리스토퍼 스톱스  
맨체스터 대성당합창단



8.572152

마르케비치:  
신포니에타, 시네마 서  
곡, 신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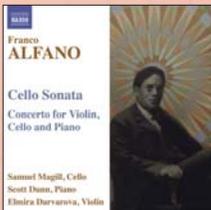
크리스티퍼 린든-지  
아른헴 필하모닉 오케스  
트라



8.572242

힌데미트:  
교향곡 Bb장조  
홀스트:  
군악대를 위한 모음곡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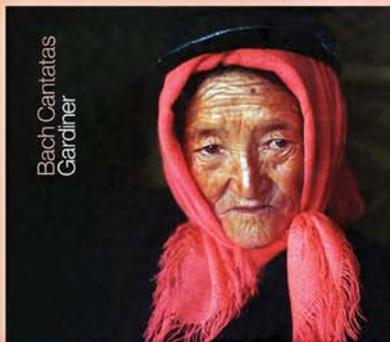
하를란 D 파커  
피바디 음악원 관악 앙  
상블



8.570928

알파노:  
첼로소나타, 피아노트리  
오를 위한 협주곡

엘미라 다라로바(vn)  
사무엘 마길(vc)  
스캇 던(pf)



SDG를 통해 선보이는 가디너 바흐 칸타타 시리즈의 20번째 음반.

## Bach Cantata Vol.4 삼위일체 후 6번째와 7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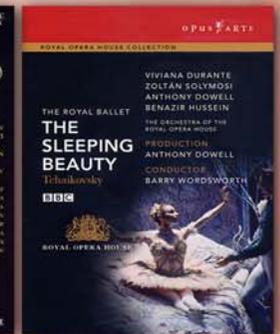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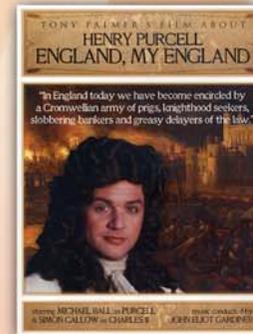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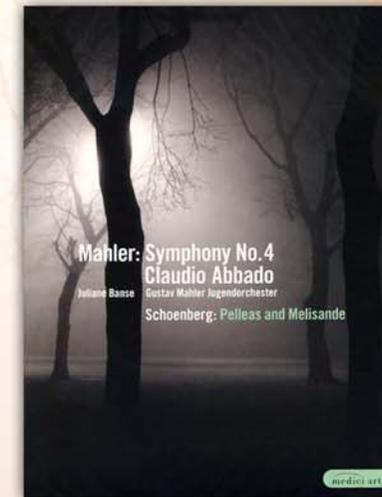
BWV 9: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도다  
BWV 107: Was willst du dich betüben 너는 무엇을 슬퍼하느냐  
BWV 170: Vergnügte Ruh, beliebte Seelenlust 안식을 즐기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라  
BWV 186: Argre dich, o Seele, nicht 오 영혼이여, 성내지 말지어다  
BWV 187: Es wartet alles auf dich 온 세상이 당신을 고대하나이다  
쿠나우: Der Gerechte kommt um 의인은 반드시 죽으니

조안 룬, 캐서린 퍼지(sop), 마이클 찬스, 리처드 윈 로버츠(alt)  
제임스 질크리스트, 코비 판 렌스부르크(te), 스티븐 바코, 슈테판 로게스(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 판매처 ]  
전국 교보닷컴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뮤직랜드/ 인터파크/  
애반/ 풍월당/ 예전레코드/ 하이클래식/  
뮤직프라자(중로)/ GM뮤직(부산)

#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38호 | July 2009



New Releases

월드뮤직 컴필레이션, 떠돌이별 임의진의 '커피여행'

존 엘리엇 가디너 '바흐 칸타타 Vo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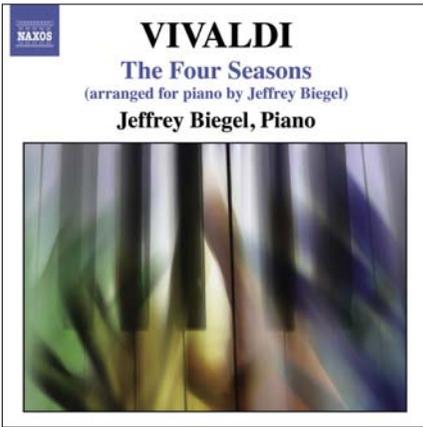
Cover Story

이 달의 주목할만한 DVD



Naxos

www.naxos.com



8.570031  
비발디: 사계 (피아노를 위한 편곡)  
제프리 비겔 (pf)

식상할 정도로 너무나 널리 알려진 비발디의 사계지만, 피아노의 통통 튀는 음색을 통해 구현되는 이 작품의 감흥은 신선하다. 85년 카펠 콩쿠르와 89년 롱-티보 콩쿠르를 석권했던 피아니스트 제프리 비겔이 사계전곡을 피아노를 위해 편곡하였다. 아울러 앤드류 젠타일이 편곡한 만돌린협주곡 RV.425와 류트협주곡 RV.93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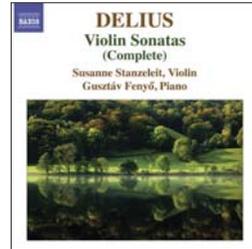
8.570938  
포레: 피아노오중주 1,2번  
크리스티나 오르티즈(pf)

파인 아트 콰텟  
포레의 피아노오중주들은 슈만과 브람스의 동일 장르의 작품들에 상응하는 프랑스 로맨틱 실내악의 대표작들이다. 작곡가 특유의 우아한 선율미와 정교한 대위법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드뷔시와 같은 자국의 후배작곡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실내악의 원로단체인 파인 아트 사중주단과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크리스티나 오르티즈의 협연을 통해 이 아름다운 걸작들을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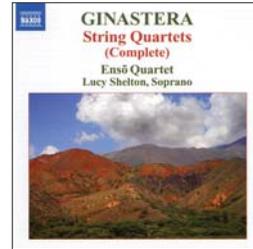
8.571271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1,3번

이딜 타바코프  
에밀 타바코프  
빌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피아노협주곡 1번은 현정대상이었던 니콜라이 루빈시타인에게서 혹평을 받았지만, 지금은 가장 인기 높은 피아노협주곡의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 협주곡 3번은 7번 교향곡을 위한 스케치들을 재활용한 작품으로 1악장만 완성된 상태에서 작곡이 중지되었다. 이후 제자 타네예프가 이를 완성하였지만, 본 음반에서는 순수한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인 1악장만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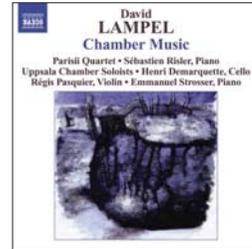
8.572261  
델리어스:  
바이올린소나타 전곡  
수잔 슈탄헬라이트(vn)  
구스타프 페노(pf)

델리어스의 바이올린소나타들은 그의 관현악작품들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감수성과 기뻐이런 악상들이 고스란히 배어나온다. 1892년의 미번호 B장조 소나타에서 1930년의 3번 소나타에 이르기까지 바그너의 후기낭만주의와 프랑스 인상파 음악의 영향에서부터 서서히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만들어 갔던 이 작곡가의 변화상을 이 음반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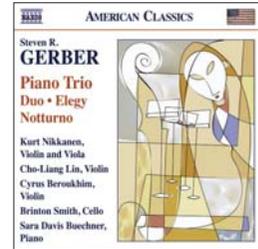
8.570780  
히나스테라: 현악사중주 전곡  
루시 셸튼(sop)  
앤조 퀴렛

20세기 라틴 클래식 대표 작곡가의 한 사람인 아르헨티나의 히나스테라는 3편의 현악사중주를 완성하였다. 1번은 아르헨티나 민속음악의 독특한 리듬과 선율을 접목한 작품이며, 2번은 미분음과 다조성을 적용했던 신포현주의 시대의 작품이다. 3번은 삼베르크의 현악사중주 Op.10과 마찬가지로 현악사중주에 소프라노 독창의 성악을 접목한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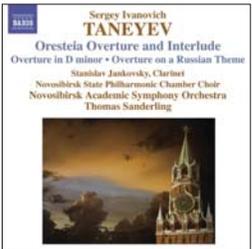
8.572106  
람펠: 현악사중주, 피아노소나타,  
바이올린소나타 외  
파리시 콰텟,  
세바스티앵 리슬러(pf),  
웁살라 첼머 솔로이스츠 외

스웨덴 작곡가 다비트 람펠(1959년생)은 '음악은 시작 전부터 들을 수 있고, 마지막 음표 뒤에도 계속 지속된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자신의 음악을 통해 입증하고자 노력하는 작곡가다. 숄바콕질을 음악으로 변형한 피아노소나타, 각각 삼베르크와 바흐에 대한 오마주들이 현악육중주와 사콘느, 그리고 각각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스타일을 차용한 작품들이 현악사중주와 바이올린소나타를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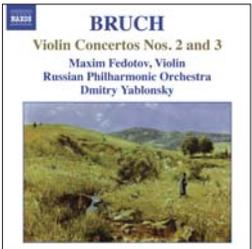
8.559618  
거버: 피아노트리오, 거쉬위니아  
나, 3개의 포크송 외  
초랑린, 커트 니카넨(vn), 브린튼  
스미스(vc), 사라 데이비스 뷔호  
너(pf) 외

스티븐 거버(1948년생)는 선율 중심의 보수적인 조성음악의 틀을 고수하고 있는 작곡가다. 3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거쉬위니아'는 거버의 선율 단편들을 재조합하여 완성한 작품이며, 피아노트리오를 위한 '3개의 포크송 변형' 역시 미국 포크송들의 선율에 기반을 둔 곡이다. '쇼스타코비치의 이름에 의한 엘레지'는 쇼스타코비치의 이름자인 SHSTA DMT의 음을 토대로 완성한 곡이다.



8.570584  
타네예프: 러시아 주제의 서곡,  
오레스티아 서곡 외  
토마스 잔데링  
노보시비르스크 아카데미 심포니

타네예프는 차이코프스키의 제자였으며, 스크랴빈과 라흐마니노프의 스승이었다. '오레스티아'는 그의 유일한 오페라로 3막 전주곡 '넬피의 아폴로신전'이 독립곡으로 자주 연주되며, 서곡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향시를 방불케 하는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한다. 장엄함이 돋보이는 푸슈킨의 'exegi monumentum'에 의한 칸타타, 빼어난 서정성의 아디지오, 향토적인 색채가 두드러지는 러시아 주제의 서곡 등을 수록.



8.557793  
브루흐: 바이올린협주곡 2,3번  
막심 페도토프(vn)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러시아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2,3번은 로맨틱 협주곡의 대명사와 같은 1번의 위용에 가려져왔지만, 그 나름의 매력과 완성도를 갖춘 가작들이다. 사라사테에게 헌정된 2번은 풍부한 표정을 담은 랩소디 풍의 아다지오가 1악장에 배치된 독특한 작품으로, 화려한 독주와 호방한 관현악이 어우러진 마지막 악장이 인상적이다. 1번에 이어서 요아힘에게 헌정된 3번은 서정적인 느린 악장과 무궁동 풍의 현란한 3악장을 갖추고 있다.



8.570932  
마르투치: 피아노협주곡 2번, 세  
레나타, 노벨레타 외  
제수알도 코기(pf)/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 오케스트라 심포니카  
디 로마

피아노협주곡 2번은 마르투치의 대편성 관현악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던 작품으로, 토스카니니, 말러, 바인가르트너와 같은 거장들이 이 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렸다. 로맨틱협주곡의 전형에 따른 작품으로, 드라마틱한 1악장, 우아한 2악장, 화려한 기교의 마지막 악장이 조화를 이뤘다. 아름다운 피아노소품들인 '노벨레타', '세레나타', '악흥의 순간과 미뉴에트', '동양색채'의 관현악 편곡이 함께 수록.



8.572231  
푸초: 밀레니움 카논, 홀스트: 헤  
머스미스 전주곡과 스케르초 외  
존 P 린치/ 조지아 대학 윈드 앙  
상블

홀스트의 '헤머스미스'는 런던 헤머스미스의 두 이미지(템즈강의 흐름, 활기찬 군중들)를 프렐류드와 스케르초로 나누어 담은 작품. 푸초의 '밀레니움 캐논'은 새 세기의 도래를 기념하는 스펙터클한 팡파르이며, 맥키의 'kingfishers catch fire'는 석양을 배경으로 나는 물총새를 그린 작품이다. 콜라라도의 장엄한 풍광을 담은 커스터의 'lost gulch lookout', 50년대의 스윙을 연상케 하는 고브의 'awayday'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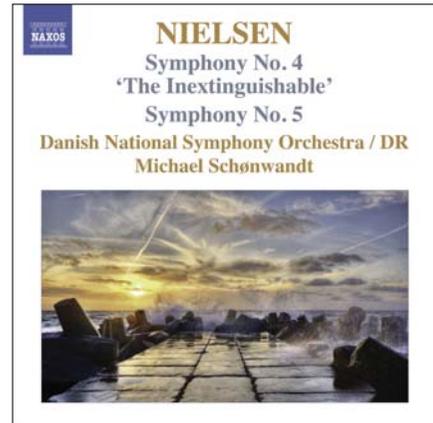
8.570603  
게 간-루: 현악사중주 1,4,5번  
모던 워크스

게간루는 중국 최초의 아방가르드 작곡가로 불리며, 중국의 전통음악적 요소를 서구의 작곡기법을 통해 표현하는 일에 노력해왔다. 이라크전쟁에서 영감을 얻은 현악사중주 5번 '바그다드 함락'은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조지 크럼의 문제작 '블랙엔젤'에 대한 오마주와도 같은 작품이며, 크로노스 콰텟의 찬사를 받았던 1번 '賦'(중국 산문시)는 중국 전통시와 서예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8.570604  
주 롱: 야초, 태평고, 첩 이:  
중국 고대춤, 독백 외  
베이징 뉴 뮤직 앙상블

솔로 클라리넷을 위한 '독백'은 아류정전에서 영감을 얻은 곡이며, 2개의 중국 고대 춤곡은 각각 주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춤곡들에 기초하였다. '湖'와 '鋼琴?'는 각각 중국 전통발현악기인 고고과 플루트, 징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이다. 첼로 독주를 위한 '野草'에는 루쉰의 글의 낭송이 덧붙여져있다. '鼓韻'은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다양한 중국 전통 타악기들을 위한 작품이다.



8.570739  
닐센: 교향곡 4번 '불멸, 교향곡 5번  
미카엘 심반트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Classicstoday 10/10, BBC 뮤직매거진 만점, 포노포럼 만점다카포의 닐센 교향곡 전집이 낙소스를 통해 마침내 완결 재발매되었다. 이번 마지막 음반에는 작곡가를 대표하는 두 교향곡 걸작이 함께 수록되었다. 특히 4번은 '불멸'이라는 강렬한 부제에 걸맞은 드라마틱한 작품으로, 두 세트의 팀파니가 주고받는 강렬한 울림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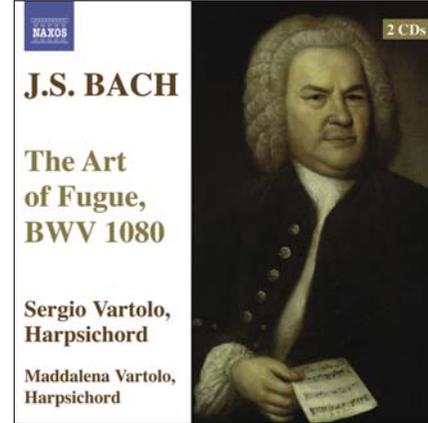
8.571263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3번 '에로이카'** (피아노 편곡)  
 이딜 비렛(pf)  
 EMI Elctrola 음원의 재발매"이딜 비렛과 같은 풍부한 재능의 피아니스트가 특정 레퍼토리에 자신을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하게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는 드문 일이다. 비렛이 선보인 리스트 편곡의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는 이 연주자의 국제적인 명성을 확고히 보증해준다. - 포노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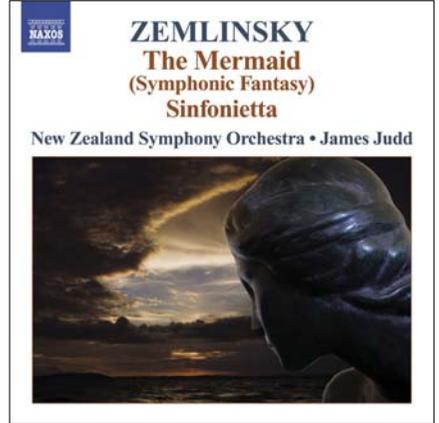
8.572341  
**윤-이 킨 피아노 리사이틀**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그라나도스, 스크랴빈, 리스트 외  
 2008년 스페인의 하엔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윤-이 킨의 낙소스 데뷔 음반. 하이든의 소나타 33번과 모차르트의 뒤포르 메뉴엣에 의한 변주곡에서는 맑고 경쾌한 터치, 슈베르트의 소나타 16번에서는 풍부한 표현력이, 리스트의 초절기교연습곡 '아파소나타'에서는 우수한 기교가 돋보인다. 중국 전통 선율인 '류양강'이나, 위대한 피아니스트 프리드만의 쇼피스 '뮤직박스'와 같은 참신한 소품들도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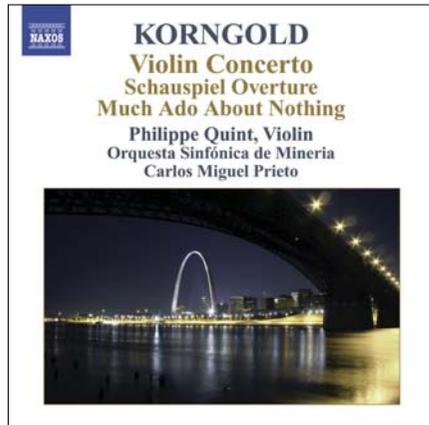
8.570255  
**베토벤: 교향곡 2번 (피아노트리오 편곡), 피아노트리오 Op.1-3**  
 자이리언 트리오  
 교향곡 2번은 베토벤이 하이든의 영향권 아래서 서서히 자기 색깔을 만들어가던 시기의 작품으로, 통상적인 미뉴에트 대신 스케르초를 삽입한 점이 인상적이다. 작곡가 자신에 의한 피아노 트리오는 위한 편곡은 축소된 악기 편성에도 불구하고 이 교향곡의 본질을 충분히 전달해준다. 베토벤 초기 실내악의 걸작인 피아노 트리오는 Op.1-3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577-78 [ 2CD ]  
**JS 바흐: 푸가의 기법 BWV1080**  
 세르조 바르톨로 (cemb)  
 바흐가 남긴 마지막 걸작인 '푸가의 기법'은 제멋처럼 평생을 통해 쌓아왔던 대위법에 대한 이 작곡가의 모든 노하우가 총동원된 심원한 작품이다. 세르조 바르톨로의 이 음반은 작곡가의 자필악보와 1751/2년의 최초 출판본을 기초로 연주자 자신의 새로운 에디션에 사용된 것이다. 콘트라푸토스 13번의 두 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편곡들까지 포함하였으며, 이 트랙들에서는 딸 막달레나 세르조가 함께 녹음에 참여하였다.



8.570240  
**첼린스키: 신포니에타, 교향환상곡 <인어공주>**  
 제임스 저드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안데르손의 동화를 대편성 관현악으로 표현한 교향환상곡 '인어공주'는 서정 교향곡과 더불어 첼린스키를 대표하는 양대 관현악 걸작이다. 왕자에 대한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어공주의 비극이 후기 낭만주의 특유의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펼쳐진다. 작곡가의 만년작인 신포니에타는 활찬 에너지가 내재된 작품으로, 그가 신 빈악파의 산파였음을 새삼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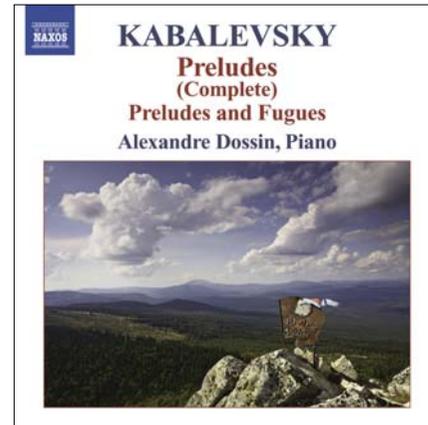
8.570791  
**코른골드: 바이올린협주곡, 헛소동 모음곡, 극을 위한 서곡**  
 필립 퀴트(vn)  
 카를로스 미구엘 프리에토  
 오케스타 신포니카 데 미네리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할리우드 영화음악 작곡가로 평가절하되고 말았지만, 코른골드는 후기 낭만음악의 전통을 가장 마지막까지 계승했던 천재 작곡가였다. 하이페츠를 위해 완성한 바이올린협주곡은 그의 로맨틱한 감성을 풍부히 머금고 있는 작품으로, 특히 2악장 로망스의 아름다움이 각별하다. 세익스피어의 '헛소동'을 위한 극부수음악에서 발췌한 모음곡 역시 선율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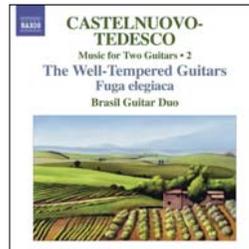
8.572024  
**마르티누: 엑스퀴세스, 유희 1,2, 녹턴, 비극적 노래 외**  
 조르시오 쿠클(pf)  
 쿠클의 마르티누 피아노작품 시리즈는 4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몇 권의 필사악보들이 발견되면서 이를 녹음한 2장의 음반이 추가되었다. 재즈와 랙타임의 영향이 느껴지는 경쾌한 작품집인 엑스퀴세스 1권과 유희 1,2, 3개의 서정적인 소품, '검은 바닥', 3가지 표제적인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인 '해변에서의 저녁', 무언가, 야상곡, 비극적 노래 등의 다양한 성격의 작품들이 망라되었다.



8.570454  
**레거: 오르간 소품, 코랄 전주곡, 코랄 판타지 외**  
 요제프 슈틸(org)  
 레거는 바흐 이후 독일 오르간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손꼽힌다. 본 신보는 그의 오르간 작품 시리즈의 9번째 음반으로, '만세, 영광의 왕 만세' 선율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12개의 오르간소품 Op.65 중의 전반 6곡, 6곡의 코랄 프렐류드, 코랄 판타지 '당신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등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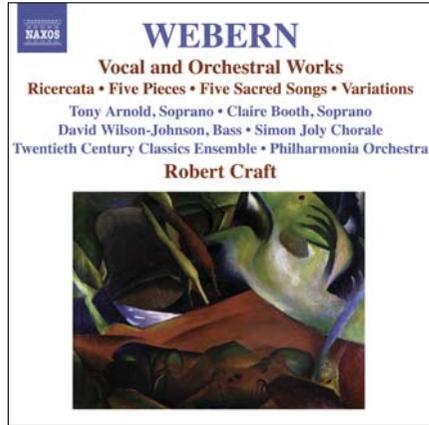
8.570976  
**카발레프스키: 24개의 전주곡, 6개의 전주곡과 푸가, 4개의 전주곡**  
 알렉산드르 도신(pf)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주요 추종자였던 카발레프스키는 쇼팽의 전주곡을 모델로 러시아 민속음악의 선율을 차용한 24개의 전주곡을 완성하였다. 초기적인 4개의 전주곡과 푸가에 대한 이 작곡가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6개의 전주곡과 푸가가 함께 수록되었다. 2003년 아르헨티나 콩쿠르 우승자이자 작곡가의 피아노 소나타 음반으로 호평을 얻었던 알렉산드르 도신이 연주를 맡았다.



8.570779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2대의 기타를 위한 평균율 브라질 기타 듀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는 기타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 악기를 위한 뛰어난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죽기 직전에 완성한 묘비명에도 같은 작품인 '푸가 엘레지아카'와 바흐의 걸작에 대한 오마주 작품인 2대의 기타를 위한 24개의 평균율의 후반부 12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평균율의 전반부를 담은 8.570778은 평단과 기타 애호가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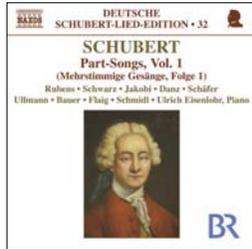
8.572139  
**팔로모: 나의 한적한 정원, 마드리갈과 5개의 목요 외**  
 마리아 바요(sop)/ 페페 로메로(guitar)/ 프뤼벡 드 브루고스/ 세비아 심포니 외  
 나의 한적한 정원'과 마드리갈과 5개의 목요의 노래는 스페인의 향토색 가득한 기타 반주의 연가 곡들로 이 나라를 대표하는 두 정상급 아티스트인 마리아 바요와 페페 로메로가 연주를 맡았다. 기타 사중주와 관현악을 위한 시엔푸에고스 협주곡 역시 이 나라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작품으로 로메로 기타사중주단과 스페인을 대표하는 거장 라파엘 프뤼벡 데 브루고스가 연주에 참여하였다.



8.557531  
**베베른: 성악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  
 데이비드 윌슨 존슨(br)외  
 로버트 크래프트  
 필하모니아 외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의 애제자였던 로버트 크래프트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신인악파 음악의 스페셜리스트이다. 본 작에는 바흐의 '음악의 헌정'의 리체르카타에 대한 베베른의 편곡,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5개의 악장, 5개의 관현악소품, 관현악 변주곡과 같은 주요 관현악작품들과 칸타타 2번, 5개의 종교가곡 등의 주요 성악곡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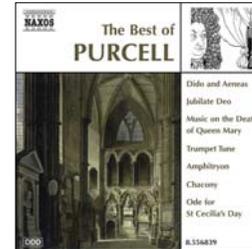
8.570533  
**그라나도스: 별의 노래, 모레라; 아베 마리아, 카잘스: 동정녀의 묵주 외 보이시스 오브 어센션/ 더글라스 리바(pf)/ 마크 크루첵(org) 외**  
 카탈루냐 출신 작곡가들의 합창곡들을 담은 음반. 피아노와 합창단을 위한 협주곡과도 같은 대작인 그라나도스의 '별의 노래'와 불멸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남긴 너무나 아름다운 종교합창곡인 '성모의 묵주'가 단연 돋보이는 걸작들이며 이외에도 카잘스의 '나는 검은나', 블랑카 포르트의 '사랑의 찬가', 모레라의 '아베마리아', 그라나도스의 '로만차', 울트라라의 '메아리' 등의 매력적인 합창곡들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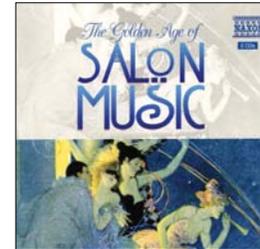
8.570961  
**슈베르트: 파트 송 1집**  
 시빌라 루벤스, 잉게보르크 단츠, 마르쿠스 새퍼, 토마스 바우어 외  
 베렌라이터의 신 슈베르트 에디션에 따른 슈베르트 가곡 시리즈의 32번째 음반. 13곡의 중창곡들을 수록하였다. '우정', '지금 육체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창조주 하나님', '폭풍 속의 하나님', '조물주 찬가', '석양', '수천의 별들이 빛나네', '태양에게', '결혼식 불고기', '운명의 주인이여, 내려보소서', '기도', '춤'을 시빌라 루벤스, 잉게보르크 단츠, 토마스 바우어 등의 정상급 가수들의 노래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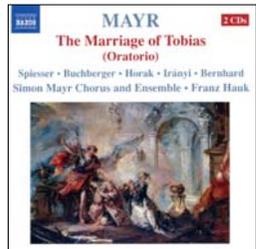
8.578021-22 [ 2CD ]  
**The Very Best of Cinema Classics**  
 디어 헨터: 카바티나/ 양들의 침묵: 골드베르크변주곡 아리아/ 아웃 오브 아프리카: 클라리넷협주곡 2악장/ 엘비라 마디간: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1번 2악장/ 쇼생크탈출: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이중창/ 플래툰: 바버 헨을 위한 아다지오/ 신들러리스트: 메인테마/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드보르작 루살카 중 달의 노래/ 엑스컬러버: 오프 카르미나 부라나/ 지옥의 묵시록: 바그너 발퀴레의 승마/ 필라델피아: 카탈리나 라 왈리 중 '어디로' / 아기돼지 베이브: 생상 교향곡 3번 피날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슈트라우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입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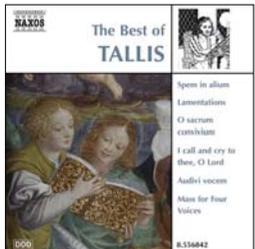
8.556839  
**The Best of Henry Purcell**  
 인디안 쿤 중 트럼펫 서곡과 트럼펫 튜, 주빌라테 데오, 오페라 디도와 아에네아스 발레, 판타지아 C단조, 암피트리온 중 테리시스와 이리스의 목가적인 대화, 페어리 쿤 중 4막 심포니, Blow up the trumpet in Sion, 사콘느, 메리 여왕을 위한 장송음악 발레, 하프시코드모음곡 2번 중 코랑트, Now that the sun hath veiled his light, 성 세실리아를 위한 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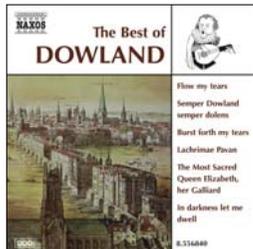
8.578003-04 [ 2CD ]  
**The Golden Age of Salon Music**  
 게오르크 후버 슈바넨 살롱 오케스트라  
 발트하이펠의 스케이타르 왈츠, 고다르의 조슬린 자장가, 엘가의 사랑의 인사, 앤더슨의 블루 탕고, 덴차의 푸니쿨리 푸니쿨라, 레온카발로의 마티나타,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러시아민요 검은 눈동자, 마스네의 명상곡,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루빈스타인의 멜로디와 같은 귀에 익은 클래식 소품들을 20세기 초 유럽 변화가 카페의 소편성 오케스트라들이 즐겨 연주하던 스타일로 편곡 및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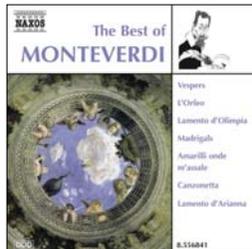
8.570752-53 [ 2CD ]  
**마이어: 오라토리오 <토비아스의 결혼>**  
 여러 성악가들/ 프란츠 하우크/ 지몬 마이어 코러스와 앙상블  
 도니체티의 스승이었던 지몬 마이어는 오페라와 종교음악 분야에서 크게 활약했던 인물이다. 오라토리오 '토비아스의 결혼'은 하이든의 첫 오라토리오인 '토비아스의 귀환'과 마찬가지로 구약외경 중의 토비트서의 내용을 음악으로 옮긴 것이다. 여성 구비원을 위해 완성된 작품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모든 배역들을 여성가수들이 노래하게끔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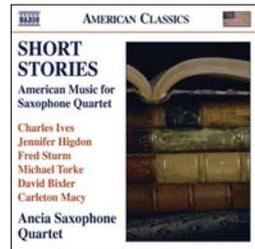
8.556842  
**The Best of Thomas Tallis**  
 O sacrum convivium, Audivi vocem, 에레미아의 애가 1부, Discomfort them O Lord. Loquebantur variis linguis. 에레미아의 애가 2부, Videte miraculum, 4성부를 위한 미사 중 상투스, I call and cry to thee O Lord, Salvator mundi, 40성부를 위한 Spem in alium 등 탈리스가 남긴 영어 앤섬과 라틴어 종교합창곡의 대표곡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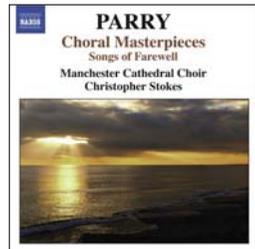
8.556840  
**The Best of John Dowland**  
 Flow my tears, 판타지 7번. 판타지 G단조, Solus cum sola, Come again, 존 랭턴의 파반느, Round Battle Galliard, Say Love if ever thou did'st find,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한 갈리아드, Semper Dowland semper dolens, All ye whom love or fortune hath betrayed, 덴마크왕을 위한 갈리아드, 레이튼부인의 울메인, 리슬 자작의 갈리아드, 로버트 시드니 경의 갈리아드, In darkness let me dwell, Lachrimae Pavan, I saw my lady weep, Burst forth, my tears, 판타지 3번



8.556841  
**The Best of Claudio Monteverdi**  
 성모를 위한 저녁기도 발레, 올림피아의 탄식, 마드리갈 2권 중 Crudel, perche mi fuggi, 마드리갈 4권 중 Ohime, se tanto amate, 마드리갈 5권 중 Cruda Amarilli, 마드리갈 6권 중 아리안나의 탄식, Amarilli onde m'assale, Dolci miei sospiri, 칸초네타 La fiera vista, 오페라 오페르오 중 토카타와 Scorto da 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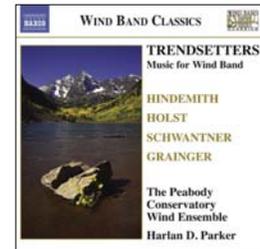
8.559616  
**색소폰 사중주를 위한 미국음악 (아이브스, 혁틴, 빅슬러 외)**  
 안시아 색소폰 사중주단  
 제리 롤 모턴의 재즈 고전 'black bottom stomp', 아이브스의 현악사중주 1번 '구세군으로부터' 중 코랄의 편곡, 개성적인 표제의 6악장으로 구성된 혁틴의 '단편들', 피카소의 미술 기법을 음악으로 표현한 스티럽의 '입+A1체화된 피카소', 제목처럼 몽환적인 마시의 '모호한 꿈', 다양한 리듬 패턴을 활용한 빅슬러의 7면체 등등 색소폰 사중주로 연주한 미국의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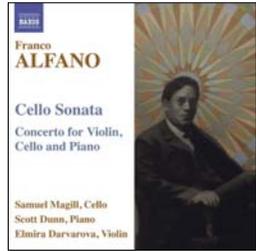
8.572104  
**패리: 이별의 노래, 예루살렘, 대전례, 대관식앤섬 외**  
 마크 롤린스(br)/ 제프리 마킨슨(org)/ 크리스토퍼 스톱스/ 멘체스터 대성당합창단  
 허버트 패리는 관현악 작곡가로도 유명하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합창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을 위한 장대한 앤섬 'I was gald when they said unto me', 영국 성공회 전례음악의 전통에 입각한 두 편의 대전례 합창곡, 시편과 영국 근대시를 조합한 합창곡 연작인 '이별의 노래', 프롬 마지막 날 콘서트의 단골 레퍼토리인 '예루살렘'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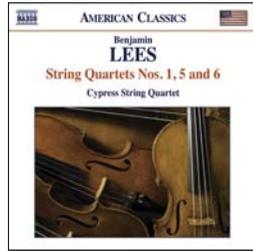
8.572152  
**마르케비치: 신포니에타, 시네마 서곡, 신세대 크리스타퍼 린든-지/ 아르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출신의 대지휘자 이고르 마르케비치는 지휘자로서의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틈틈이 창작 활동을 병행하였다. 본 음반은 그의 초기 중요 관현악 세 작품을 담았다. 신포니에타는 작곡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최초의 작품이며,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의 선율을 인용한 시네마 서곡, 폴리리듬과 신비주의 성향을 보이는 작품인 신세대 (Le Nouvel Age)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242  
**헨데미트: 교향곡 Bb장조, 홀스트: 군악대를 위한 모음곡 외**  
 하를란 D 파커/ 피비디 음악원 관악 앙상블  
 헨데미트의 교향곡 Bb장조는 콘서트 밴드를 위한 유쾌한 작품으로 특히 대위법에 대한 이 작곡가의 재능을 엿볼 수 있다. 홀스트의 모음곡 1번은 근대 밴드음악의 초석이 되는 걸작으로, 장중한 사콘느, 풍부한 표정의 간주곡, 그리고 경쾌한 행진곡이 조화를 이룬다. 46대의 타악기들이 동원되는 슈반트너의 '... and the mountains rising nowhere'와 영국 민요 선율을 에 기초한 그레인저의 링컨셔 포시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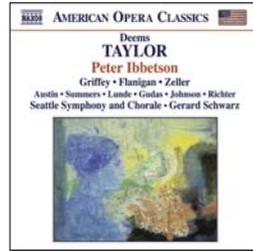
8.570928  
**알파노: 첼로소나타, 피아노트리오를 위한 협주곡**  
 엘미라 다라로바(vn)/ 사무엘 마길(vc)/ 스캇 던(pf)  
 알파노는 푸치니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투란도트'의 마지막막을 완성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정작 자신의 작품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번 신보가 이 작곡가에 대한 궁금증을 상당히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다. 첼로소나타는 드뷔시와 라벨의 영향이 느껴지는 대작이며, 협주곡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피아노트리오는 르네상스 폴리포니, 동유럽 민속음악 등이 혼합된 신고전주의 경향의 작품이다.



8.559628  
**리스: 현악사중주 1,5,6번**  
 사이프러스 현악사중주단  
 벤저민 리스는 음악계의 악동이라고 불리던 조지 엔데일을 사사했지만, 음악 스타일은 스승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이다. 아이브스, 코플랜드와 같은 미국 토박이 작곡가들 대신 프로코피예프와 바르토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으며, 무조음악을 배격하고 선율중심의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그의 현악사중주 5번은 챔버 뮤직 아메리카에 의해 101개의 위대한 앙상블 작품의 하나로 선정된 걸작이다.



8.559612  
**모: Strange Exclaiming Music, Flex Time, Market Force 외**  
 커티스 마콤버(vn)/ 스티븐 가슬링(pf)/ 뉴욕 색소폰 콰텟/ 더블 플레이 퍼커션 듀오 외  
 에릭 모는 자칭 '아름답고 조용한 음악'에서 '가칠고 귀에 거슬리는 음악'의 양극단을 오가는 작곡가다. 'Strange exclaiming music'이나 'flex time'과 같은 선율적인 음악 외에도, 풍가 드럼을 위한 'Teeth of the Sea', 마림바를 위한 'down the stream, merrily', 6대의 타악기를 위한 'I have only one itching desire', 색소폰 사중주를 위한 'market force'와 같은 다양한 표현매체를 위한 작품들이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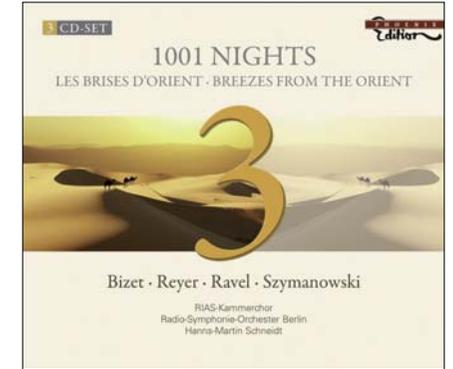
8.669016-17 [ 2CD ]  
**테일러: 피터 이버트슨**  
 여러 가수들/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와 합창단  
 미국 작곡가 덤스 테일러(1885-1966)는 월터 디즈니의 만화영화 '환타지아'의 진행자로 낯익은 인물이다. 1930년에 초연된 '피터 이버트슨'은 조르주 뒤 모리에르의 소설을 토대로 완성한 3막의 오페라로 초연 이후 80년 대 중반까지 메트 무대에 가장 많이 올려졌던 미국산 오페라였다. 1999년 시애틀에서의 리바이벌 실황을 담은 본 신보는 2차대전 이전 미국의 대표 오페라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시켜줄 것이다.

Phoenix Edition

www.phoenixedition.com



400 [ 3CD ]  
**바흐: 재구성된 협주곡들**  
 크리스틴 쇠른샤임(org), 칼 주스케(vn), 부카르트 그레츠너(ob), 막스 폼머/ 노이에 바흐 플레가우 무지쿰 라이프치히  
 바흐의 하프시코드협주곡들은 다른 악기들을 위한 자신의 협주곡들을 편곡한 것들이며, 칸타타에 삽입된 시모니아들의 일부도 과거의 협주곡들을 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음반에는 지휘자 막스 폼머와 바흐학자 한스 요아힘 슐츠가 오리지널로 추정되는 형태로 재구성한 9곡의 협주곡들을 수록하였다.



420 [ 3CD ]  
**오리엔트를 그린 음악들(세헤라자데, 오리엔탈 심포니, 무친의 노래 외)**  
 기셀라 파시노(sop)/ RIAS 실내합창단/ 한스 마틴 슈나이트/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외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시 '세헤라자데', 성악과 관현악을 위한 리벨의 '세헤라자데', 독창과 합창, 관현악을 위한 루이스 라이어의 오리엔탈 심포니 'Le Selam', 시마노프스키의 연가곡 '무친(이슬람사원에서 기도시간을 알리는 사람)의 사랑노래, 코르넬리우스의 '바그다드의 이발사' 서곡, 베토벤의 '아테네의 페허' 중 터기행진곡, 베버의 '오베론' 서곡,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중 일곱 베일의 춤, 비제의 '진주조개잡이' 중 '신성한 사원에서' 등의 오리엔탈 풍의 작품들로 구성된 음반.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8.111353  
**바흐: 파르티타 1, 5, 6번, 이탈리아협주곡**  
 베토벤: 템페스트 소나타  
 발터 기제킹(pf)  
 발터 기제킹은 자신의 캐리어 초기부터 뛰어난 바흐 해석가로 명성을 얻었다. 1940년 녹음인 이탈리아협주곡, 39년 녹음인 파르티타 1,5,6번과 프랑스모음곡 중의 지그, 그리고 마리아 헤스가 편곡한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1931년 녹음인 베토벤의 템페스트 소나타에서는 스피디한 전개 위로 빼어난 기교를 과시한다.



8.111328  
**푸치니: 수녀 안젤리카**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외/ 툴리오 세라핀/ 로마 오페라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와 툴리오 세라핀이 호흡을 맞춘 푸치니의 '수녀 안젤리카'는 1958년 발매와 함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그라모폰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며 아름답게 노래되었다. 세라핀은 오케스트라로부터 대단히 아름다운 연주를 이끌어내었고 모든 장면에서 적절한 분위기를 연출해내었다.'고 평하였다.



412 [ 3CD ]  
**차이코프스키: 관현악모음곡 1-4번, 로미오와 줄리엣,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외**  
 네빌 매리너/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  
 차이코프스키는 교향곡 4번과 5번 사이에 4개의 관현악 모음곡을 완성하였다. 바로크 모음곡을 모방한 1번, 소리의 유희, 부를레스크, 어린이의 꿈 등의 개성적인 다섯 악장으로 구성된 2번, 교향곡을 염두에 두었으나 모음곡 형태로 마무리된 3번,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편곡한 4번 등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한 작품들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과 교향적 환상곡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이탈리아 카프리치오를 함께 수록.



416 [ 3CD ]  
**프랑스 발레 걸작선**  
 (코펠리아, 실피드, 지젤, 실비아, 신데렐라 외)  
 네빌 매리너/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 하인츠 프리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들리브의 양대 발레 걸작인 '코펠리아'와 '실비아', 프랑스 로망틱 발레의 대명사라고도 같은 작품인 아당의 '지젤', 로이 더글라스가 쇼팽의 유명한 피아노곡들을 관현악으로 편곡하여 구성한 '실피드', 유명한 페로의 동화를 소재로 한 마스네의 '신데렐라', 드뷔시의 어린이를 위한 아가자기한 발레작품인 '장난감 상자' 등등 낭만 및 근대의 프랑스 발레 걸작들의 하이라이트들을 가득 모은 음반.



404 [ 3CD ]  
**헨델: 오페라 아리아와 솔로 칸타타**  
 요한 코발스키, 악셀 괴홀러/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다스 클라이네 콘체르트 외  
 독일의 명 카운터테너 요한 코발스키가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와 함께 연주한 다섯 곡의 이탈리아인 솔로 칸타타들이 CD1에, 헨델의 오페라들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여준 카운터테너 악셀 괴홀러가 노래한 아드메토, 오를란도, 로델린다, 알치나, 리날도, 줄리아 등등 낭만 및 근대의 프랑스 발레 걸작들의 하이라이트들을 가득 모은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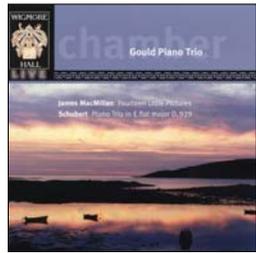


408 [ 3CD ]  
**슈베르트: 합창음악 (종교합창곡, 세속합창곡, 남성합창곡)**  
 빈 소년합창단, 라이프치히 방송합창단, RIAS 실내합창단, 베를린 남성합창단 외  
 슈베르트가 남긴 합창음악들을 3장의 CD에 갈무리하였다. CD1에는 봉헌송, 마니피카트, 아베마리아, 스타바트 마테레, 독일미사 등의 종교합창곡들이, CD2에는 슈텐첸, 목동의 합창, 해에게, 사냥꾼의 합창, 물 위의 정령들의 노래와 같은 혼성합창곡들이, CD3에는 보리수, 들에서의 밤노래, 곤돌라 사공, 나이팅게일, 기쁨의 노래, 사냥노래 등의 남성합창곡들로 구성되었다.



# Wigmore Hall Live Series

www.wigmore-hall.org.uk



WHLive 0026  
**슈베르트: 피아노트리오 2번 D.929,**  
**맥밀란: 14개의 작은 그림들**  
**골드 피아노 트리오**

바이올린의 낸시 골드, 첼로의 알리스 니리, 피아노의 벤저민 프리스로 구성된 골드 트리오 1998년 BBC의 라이징 스타스에 선정된 이후, 영국의 실력과 실내악단으로 급성장하였다. 2008년 7월 17일 위그모어홀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본 음반에는 전도연/최민식 주연의 영화 '해피엔드'에 삽입되어 크게 주목받았던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D.929와 현재 영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작곡가로 손꼽히는 제임스 맥밀란의 개성적인 실내악 작품인 14개의 작은 그림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WHLive 0027  
**쇼팽, 라흐마니노프, 차이코프스키의 가곡들,**  
**무소르스키: 죽음의 춤과 노래 외**  
**에바 포들레스**  
**개릭 올슨 가곡 리사이틀**

차이코프스키의 대표 가곡 '다만 동경을 아는 자만이' 수록. 폴란드를 대표하는 알토 에바 포들레스와 1970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개릭 올슨이 함께한 2008년 1월 23일 리사이틀 실황음반. 무소르스키의 연가곡 '죽음의 노래와 춤'을 필두로, 쇼팽,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대표가곡들을 망라하였고, 시마노프스키의 유명한 피아노독주곡 '마스크'를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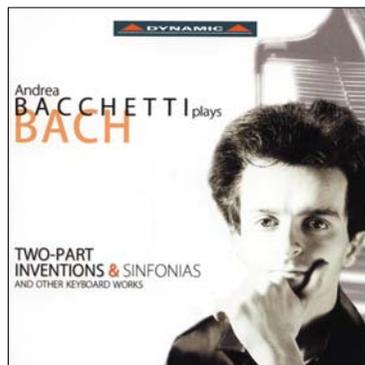
WHLive 0028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Op.44-2,**  
**모차르트: 현악사중주 K.465 '불협화음' 외**  
**엘리아스 스트링 콰텟**

엘리아스 콰텟은 2003년 런던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영국 실내악계의 기대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젊은 앙상블이다. 본 음반은 2008년 12월 29일 위그모어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현악사중주 Op.44-2와 모차르트의 '불협화음' 현악사중주, 그리고 슈베르트의 Quartettsatz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였다.



# Dynamic

www.dynamic.it



CDS 629/1-2 [ 2 for 1 ]  
**JS 바흐: 2성부 인벤션과 신포니아 전곡 외**  
**안드레아 바케티(pf)**

안드레아 바케티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바흐 스페셜리스트이다. 그의 연주를 담은 골드베르크 변주곡 DVD(Arthaus)는 Classicstoday, Ritmo, BBC Music Magazine 등의 전문지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본 신보에는 2성부 인벤션과 신포니아 전곡 외에도 프랑스모음곡 6번, 파르티타 2번, 두 세트의 작은 전주곡(BWV933-943, 999) 등이 2장의 CD에 빼곡히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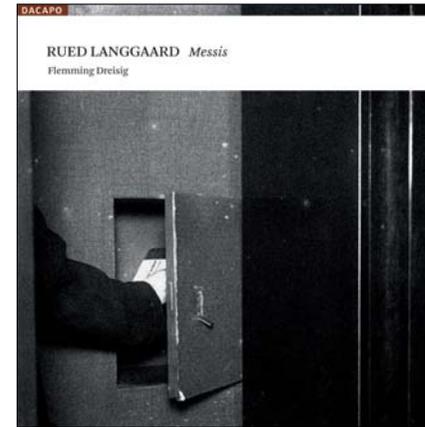


CDS 637  
**티에폴로 시대의 베네치아의 궁정음악들(로티, 플라티, 비발디 외)**  
**주제페 날린/ 앙상블 바로코 산스 수치**

조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는 바로코/로코코 전환기에 활동한 베네치아 출신의 위대한 화가다. 본 음반에는 그의 활동시기인 18세기 중반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곡가들이인 비발디, 로티, 플라티, 브레스키 아벨로, 스테파니, 몬타나리의 관악기들을 위한 소나타들을 수록하였다. 티에폴로의 그림만큼이나 화려한 맵시를 자랑하는 당대 관악음악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 DACAPO Dacapo

www.dacapo-records.d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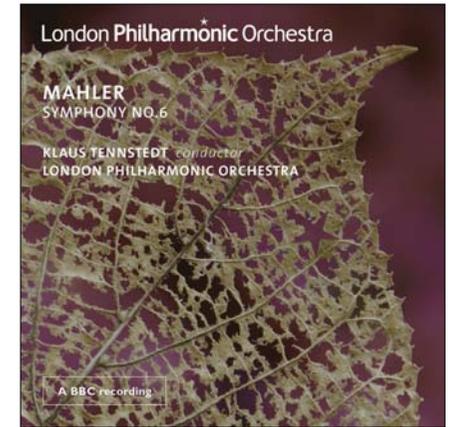


6,220528-29 [ 2Hybrid-SACD ]  
**랑고르: 오르간 3부작 'Messis' (추수-秋收)**  
**플레밍 드레이시(org)**

후기 낭만주의를 고수했던 덴마크의 작곡가 루에드 랑고르는 1930년대 대부분을 오르간을 위한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인 'Messis'의 완성 에 전념하였다. 이 대작은 3개의 파트(추수-messis, 사도요한-Juan, 지옥에 매장되어)와 후주곡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연주시간만 2시간이 넘는다. 작품의 각 부분은 시편과 복음서의 구절들을 음악으로 나타낸 것으로, 작곡가 자신의 심원한 신앙고백을 담은 명상적인 작품이다.

#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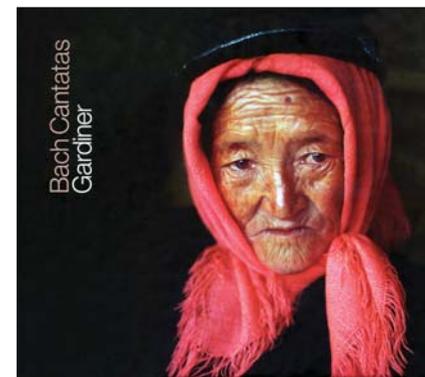
LPO-0038 [ 2CD 1.5장 가격 ]  
**말러: 교향곡 6번 '비극적'**  
**클라우스 텐슈테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말러는 자신의 교향곡 6번의 피날레를 두고 '세번에 걸친 운명의 타격을 받은 영웅이 마침내 고목이 쓰러지듯 쓰러진다'고 묘사하였다. 1983년 8월 22일 로얄 알버트홀에서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본 신보에는 위대한 말러리안이었던 클라우스 텐슈테트의 선 굵은 말러관이 멋지게 투영되었다. 스튜디오에서보다 콘서트 실황에서 자신의 진가를 심분 발휘했던 이 거장의 고졸력 연주를 만나보시라.



# Soli Deo Gloria [SDG]

www.solideogloria.co.uk



SDG 156 [ 2CD ]  
**Bach Cantata Vol. 4**  
**삼위일체 후 6번째와 7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

BWV 9: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도다  
 BWV 107: Was willst du dich betrüben/ 너는 무엇을 슬퍼하느냐  
 BWV 170: Vergnügte Ruh, beliebte Seelenlust/  
 안식을 즐기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라  
 BWV 186: Argre dich, o Seele, nicht/ 오 영혼이여, 성내지 말지어다  
 BWV 187: Es wartet alles auf dich/ 온 세상이 당신을 고대하나이다  
 쿠나우: Der Gerechte kommt um/ 의인은 반드시 죽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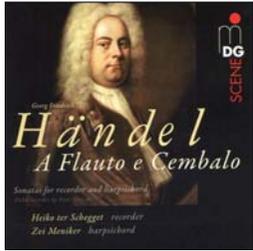
조안 룬, 캐서린 퍼지(sop)/ 마이클 찬스, 리처드 윈 로버츠(alt)/ 제임스 질크리스트, 코비 판 렌스부르크(te)/ 스티븐 바코, 슈테판 로게스(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SDG를 통해 선보이는 가디너 바흐 칸타타 시리즈의 20번째 음반. 2000년 7월 30일 독일 안스바흐(삼위일체 후 6번째 주일)와 8월 5, 6일 스코틀랜드 하딩턴(삼위일체 후 7번째 주일)에서의 실황을 수록하였다. 알토를 위한 솔로 칸타타인 BWV170은 영국의 정상급 카운터테너 마이클 찬스가 노래하였다. CD1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송 칸타타 'Der Gerechte kommt um'은 과거 바흐의 작품으로 추정되었지만 최근 들어 전임자 쿠나우의 것으로 판명된 작품으로, 가디너의 바흐 순례여행 시리즈에서 앙코르로 자주 연주되었던 작품이다. 두 파트 11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장대한 칸타타인 BWV186과 요한 헤르만의 찬가를 그대로(per omnes versus) 사용한 BWV107, 그리고 후일 미사 G단조 BWV235에 일부 선율이 차용된 BWV187이 CD2에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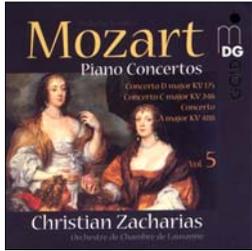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www.mdg.de



905 1564-6 (Hybrid SACD)  
**헨델: 리코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하이코 테르 스테헤트(리코더)/  
즈비 메니커(하프시코드)

헨델의 리코더소나타들은 당대부터 연주용과 교습용으로 큰 인기를 누렸으며, 헨델 역시도 자신의 다른 작품들에 이 작품들의 선율들을 자주 재활용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다. 이 음반의 진정한 스타는 헨델 당시인 1715년 무렵 피터 브레산이라는 악기장인이 만든 트레블 리코더다. 연주자들은 프란츠 브뤼헨의 리코더 컬렉션 중 하나인 이 악기를 특별히 빌려와서 일부 수록곡들을 녹음하였다.



940 1562-6 (Hybrid SACD)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5, 8, 23번**  
크리스티안 차하리아스(피아노,  
지휘)/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

호평을 받으며 진행중인 차하리아스의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시리즈의 5번째 음반. 작곡가의 피아노협주곡들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인기곡의 하나인 23번(KV488)과 초기 협주곡 두 편(5,8번)을 함께 담았다. 차하리아스의 깨끗한 터치와 초기 협주곡들에 담긴 모차르트의 해맑은 악상들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23번 협주곡의 세련미 역시 부족함 없이 연출해내었다. 오디오파일용으로 손색이 없는 뛰어난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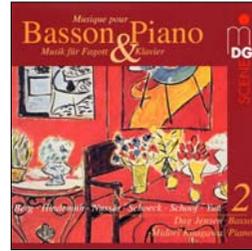
943 1558-6 (Hybrid SACD)  
**쇼팽: 피아노음악(스케르초, 녹턴, 즉흥환상곡)**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1901년  
산 슈타인웨이 피아노)

그루지아 출신의 레온스카야는 구 소련이 배출한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의 한 사람이며, 특히 낭만시대 피아노 음악 분야에서 그가 보여줬던 활약상은 특기할만하다. MDG에 새 동지를 틈 이후 관록의 예술혼을 여전히 불태우고 있는 그가 쇼팽의 피아노 작품들로 새 음반을 꾸렸다. 연주에 사용한 1901년에 제작된 슈타인웨이 피아노는 연주자의 우아한 연주에 잘 어울리는 맛은 고아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943 1519-6 (Hybrid SACD)  
**생상: 피아노사중주 Bb장조, E장조, 뱃노래**  
모차르트 피아노사중주단

피아노사중주 Op.41은 19세기 프랑스 실내악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독일 실내악의 영향을 받아 4개의 악장이 유기적인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학창시절 작품이나 1992년에 되어서야 처음 출판된 피아노사중주 E장조 역시 생상의 놀라운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다. 뱃노래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와 하모니움(풍금)을 위한 작품이나 작곡가 본인의 자의 우아한 연주에 잘 어울리는 맛은 고아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603 0831-2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음악(힌데미트, 베르크, 율리안 외)**  
닥 예센(바순)/ 미도리 키타가와(피아노)

바순 전공자들과 이 악기의 독특한 음색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음반이 다시 발매되었다.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20세기의 대표작들인 힌데미트와 세크의 소나타를 비롯하여, 올라프 베르크의 소나티네와 혼란(Vertigo), 누시오의 페르골레지 아리아에 의한 변주곡, 쇼프의 2개의 즉흥곡, 그리고 바순 솔로를 위한 율리안의 작품인 바순을 위한 독백 등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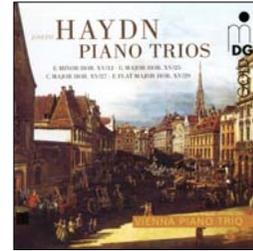
605 0100-2  
**바흐 아들들의 하프시코드 작품들(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바흐의 작은별 변주곡 포함)**  
발데마르 뮐링(하프시코드)

CD 포맷으로 처음 선보이는 MDG의 초기 대표작. 작곡가로 활약했던 바흐의 네 아들이 남긴 하프시코드 작품들을 골고루 수록하였다. 모차르트 역시 변주곡을 남긴 유명한 노래인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우리에게 작은별로 유명한)에 기초한 JCF 바흐의 변주곡, CPE 바흐의 스페인 폴리아에 의한 변주곡, WF 바흐의 대표작인 소나타 4번, 역시 모차르트에게 영향을 주었던 JC 바흐의 소나타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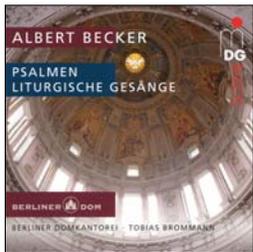
301 1563-2  
**노투르노**  
(기타가 포함된 실내악) - 크로이처, 디아벨리, 루돌프대공 외  
소냐 프른바우어(기타)/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19세기 전반기 비터마이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타는 공개 콘서트에서는 서서히 도태되기 시작했지만, 가정음악회를 위한 실내악들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본 음반에는 기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시기의 매력적인 실내악 작품 네 편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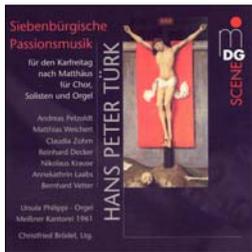
342 1556-2  
**하이든: 피아노 트리오 Hob.XV:12, 25, 27, 29**  
빈 피아노 트리오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트리오 음반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빈 피아노 트리오가 하이든의 서거 200주기와 자신들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음반을 출시하였다. 유명한 집시트리오(HobXV25)를 비롯하여 하이든의 중후기 피아노 트리오 4작품을 수록한 것. 하이든 특유의 밝고 화사한 악상과 세 악기 사이의 긴밀한 호흡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당시 빈의 대중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인기작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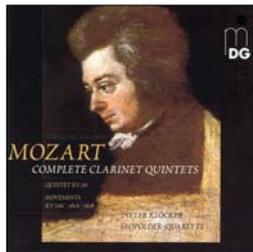
946 1516-6 (Hybrid SACD)  
**벡커: 합창음악(시편, 성무일과를 위한 루터교회합창곡)**  
토비아스 브롬만/ 베를린 돔칸토라이

알베르트 벡커는 브람스, 브루크너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다. 베를린 대성당 합창단의 책임자로 장기간 재임하면서 루터교 교회음악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합창곡들은 동시대 작곡가들에 비해 보다 바로크와 고전주의 음악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는데, 7편의 시편곡과 성무일과를 위한 합창 모두 풍부한 화성과 유려한 선율을 자랑하는 이 작곡가의 미덕을 잘 드러내는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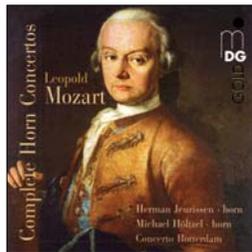
902 1554-6 (Hybrid SACD)  
**튀르크: 수난절을 위한 트랜실바니아 수난곡**  
안데르에서 페츨트(북을사) 외 / 크리스토프리트 브리델/ 마이스너 칸토라이 1961

트랜실바니아는 드라큘라의 고향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현재 루마니아에 속하지만, 이 지역의 독일계 프로테스탄트 주민들은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충실히 지켜왔다. 튀르크의 이 수난곡은 마태복음을 텍스트로 삼은 작품으로 이 지역의 종교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 한 대의 오르간이 변주를 맡고 있지만, 작품 각 부분의 다양한 분위기를 적절히 조형해내는 적극적인 스타일 활용이 인상적이다.



301 0375-2  
**모차르트: 클라리넷오중주, 클라리넷오중주를 위한 단편들**  
디에터 클뢰커(클라리넷)/ 레오폴더 쿼텟

오래도록 절판상태였던 MDG의 초기 베스트 음반이 재발매되었다. 모차르트와 카르티엘리의 협주곡들로 호평을 받았던 레이블의 간판 아티스트 디터 클뢰커의 뛰어난 명연기가 빛나는 연주로, 발매 당시 포노포럼, 스테레오플레이, 클래식과 같은 독일 유수의 전문지들로부터 절찬을 받았던 명반이다. 클라리넷 레퍼토리의 최고봉인 오중주 KV581 외에도 클라리넷 오중주 편성을 위해 작곡가가 남겼던 단편들을 모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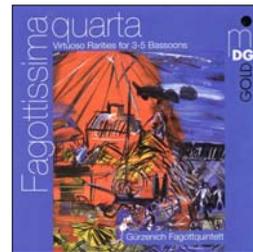
321 0085-2  
**레오폴드 모차르트: 호른협주곡 전곡**  
헤르만 요리센 외(호른)/ 하인츠 프리젠/ 콘체르토 로트르담

볼프강 아마데우스의 아버지 레오폴드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지만, 호른을 위한 작품들 역시 다수 작곡하였다. 두 독주악기의 절묘한 호흡을 요구하는 2대의 호른을 위한 협주곡, 2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더블베이스와 목동 플피리를 위한 전원신포니아, 호른과 바이올린, 2대의 비올라와 통주저음을 위한 신포니아 다 카메라, 4대의 호른과 총소리를 위한 신포니아 다 카치아 등의 독특한 호른 작품들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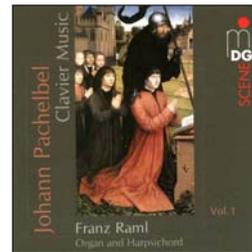
619 1560-2  
**파가니니 플라스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파가니니 관련음악들)**  
라프 헤켄마(색소폰)/ 한스 아이작커스(피아노)

파가니니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스 전곡을 색소폰으로 멋지게 연주해내었던 라프 헤켄마가 또 다른 파가니니 오마주 음반을 선보였다. '라 캄파넬라'를 비롯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품들 외에도, 슈만의 파가니니 연습곡, 시마노프스키의 3개의 파가니니 카프리스 편곡, 코슬로프의 '미스터 파가니니', 칼린코비치의 파가니니에 의한 콘서트 카프리스 등의 파가니니 관련 작품들의 색소폰 편곡들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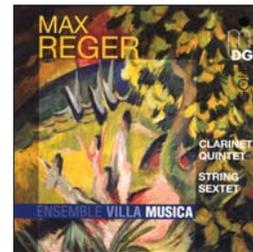
324 1565-2  
**파고티시마 콰르타(바순양상블을 위한 비르투오조 음악들)**  
귀르체니히 바순 오중주단

바순(파곳) 양상블로 연주하는 재미있는 클래식 소품들. 모차르트의 여러 선율을 재치있게 엮은 슈뢰더의 'Eine kleine lachmusik', 로시니의 고양이 듀엣과 윌리엄 텔 서곡, 브람스의 헝가리총곡 6번, 베를리니의 바이올린 소품들 외에도, 슈만의 파가니니 연습곡, 시마노프스키의 3개의 파가니니 카프리스 편곡, 코슬로프의 '미스터 파가니니', 칼린코비치의 파가니니에 의한 콘서트 카프리스 등의 파가니니 관련 작품들의 색소폰 편곡들을 수록.



614 1552-2  
**파헬렐: 건반작품집(토카타, 코랄 전주곡, 치아코나, 모음곡 외)**  
프란츠 람들(오르간 & 하프시코드)

남독일의 파헬렐은 북독일의 북스테후데와 더불어 바흐에 앞서서 독일 오르간 음악을 양분했던 위대한 이름이다. 프란츠 람들은 프라이부르크 베드로교회의 유명한 질베만 오르간의 화려한 사운드 스펙트럼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 작곡가의 코랄프레뤼드와 토카타, 그리고 판타지어들들을 녹음하였고,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 E단조도 함께 수록하였다.



304 1557-2  
**레거: 클라리넷오중주, 현악육중주**  
양상블 빌라 무지카

클라리넷오중주와 현악육중주는 레거의 실내악 작품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다. 현악육중주는 교향곡을 방불케하는 당당한 스케일의 작품이며, 죽기 불과 열흘 전에 출판된 클라리넷오중주는 모차르트와 브람스의 동일 장르 작품을 계승하는 걸작으로 많은 클라리넷 연주자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는 작품으로, 주제와 변주로 구성된 마지막 악장이 특히 인상적이다.



ARTHAUS  
MUSIC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464

카라바치오 [발레]

미술 역사상 가장 베일에 싸인 화가를 다룬 흥미만점의 발레

1571년에 태어난 이 화가의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였다. 태어난 마을의 이름을 따서 '카라바치오의 미켈란젤로'라 불리다가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미켈란젤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그냥 카라바치오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는 미술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여 6년간 로마 최고의 화가로 칭송을 받으면서도 위협적인 성격의 인물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는데, 과연 1606년 현재의 테니스에 해당하는 경기를 하던 도중 상대방을 살해하여 사형을 언도받았다.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암살자를 피해 이탈리아 반도 곳곳과 섬을 전전하다가 1610년에 세상을 떠났다. 빛과 어둠을 대비시킨 조명효과와 사실적인 묘사로 바로크 양식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한 카라바치오의 풍운아적 삶과 예술이 현재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안무가 마우로 비곤체티와 베를린 국립 발레단의 협력 하에 발레로 재탄생했다. 동 발레단의 예술감독이자 남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소유했다는 슈퍼스타 블라디미르 말라호프가 지극히 매력적이면서도 예술적 고통을 시달리는 타이틀 롤을 맡았고, 1600년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작곡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음악을 브루노 모레티가 재구성하여 당대의 분위기를 잘 살려냈다.



Arthaus 101 356

바그너: 발퀴레

에린 케이스(지그문트), 키르슈텐 블랑크(지글린데), 캐서린 포스터(브륄린데), 레나투스 메사르(보탄), 히데카츠 츠마야(훈딩) 외/ 칼 세인트 클레어/ 바이마르 슈타츠포펠레

문화 도시 바이마르의 저력을 보여준 화제의 반지 프로덕션

중부독일의 문화도시 바이마르는 바그너가 '니벨룽의 반지'의 아이디어를 처음 품었던 도시다. 그로부터 150여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도시는 전유럽의 바그너러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화제의 반지 프로덕션을 만들어내었다. 바이마르 슈타츠포펠레의 음악감독 칼 세인트클레어와 연출가 미카엘 술츠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이 프로덕션은 독일의 중소규모 극장의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었던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발퀴레'는 반지 연작들 중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손꼽히며, 1막과 3막은 콘서트형 식으로도 자주 연주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술츠는 이 거작의 씨앗이 되었던 '지크프리트의 죽음'의 전주곡을 보탄일족의 가정음악회와 같은 형태로 무대에 올리며 이 작품을 시작한다. 이어 알베라히의 손에 이끌려 등장하는 꼬마 하겐의 단말마와 같은 비명과 함께 이 혼돈의 드라마가 극적으로 시작된다. 술츠는 마임을 통해 리브레토에 직접 묘사되지 않은 이 작품의 뒷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으며, 더 이상 노래 할 것이 없는 로게, 프르, 돈너와 같은 배역들도 마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극의 전개에 한 몫을 한다.



Arthaus 101 330

푸치니: 제비

푸치니의 버림받은 오페라, 최신 영상물로 화려하게 부활하다

푸치니의 '제비' (La Rondine)는 원숙기에 씌어진 작품임에도, 작곡가의 오페라들 중에서 가장 드물게 공연되는 작품에 해당한다. 영화 '전망 좋은 방'에 삽입되었던 아름다운 아리아인 '도레타의 꿈'이나 2막의 무대인 클럽 일 볼리에르의 흥겨운 장면 등등 매력적인 부분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곡가의 다른 인기작들의 위용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불운한 작품이다. 전곡을반이나 영상 역시도 많지가 않기에, 2008년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의 무대에 올려졌던 이 공연실황은 이 오페라를 원하는 애호가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베르디와 푸치니 오페라의 스페셜리스트인 카를로 리치의 노련한지휘와 1996년 파바로티 콩쿠르 우승이후 유럽 일급 오페라 하우스들을 누비고 있는 정상급 소프라노 피오렌차 체롤린스의 열창이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60년대 풍의 밝은 색조의 화사한 의상과 세련된 무대 디자인, 무량루즈를 연상케 하는 2막 '일 볼리에르'의 화려한 무대 미술, 그리고 명 연출가 그레이엄 비크의 사실적인 연출은 시각적인 만족감을 충분히 채워줄 것이다.



R. 슈트라우스: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DVBD-OPAAN

비극이나, 희극이나? 음악극의 오랜 논점에 대한 슈트라우스의 시각

역사적으로 비극만이 진정한 드라마이고 희극은 천박하다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부유한 시민 계급이 형성된 후에야 희극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당시 희극은 위선적인 귀족 계급을 고발하고 조롱하는 대리만족의 수단이었다. 귀족이 사회를 주도하는 한 비극우위의 시각은 쉽게 교정되지 않았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는 이 문제를 재치있게 다룬다. 한 줄부의 집에서 비극 오페라가 상연되는데, 음악교사와 작곡가는 연이어 희극도 상연될 것이란 말을 듣고 필적 된다. 그러나 희극에 출연할 가수 겸 무용수 체르비네타의 활기차고 밝은 매력에 반해버린다. 드디어 그리스 비극 속의 아리아드네와 바쿠스의 장엄한 만남을 다룬 오페라가 상연되는데, 체르비네타와 네 명의 광대도 이 비극에 참여하여 슬픔에 빠진 아리아드네의 심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해내는 내용이다. 200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피가로의 결혼)으로 격찬을 받은 클라우스 구트가 연출한 2006년12월 취리히 오페라 실황. 미국의 대형 소프라노 에밀리 매기와 독일태생의 이탈리아 테너 로베르토 사카가 아리아드네와 바쿠스를 열창한다. 거장 크리스토프 폰 도흐너니가 지휘봉을 잡았다.

OPUS ARTE www.opusarte.com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어윈 슈로트(피가로)/ 미아 페르손(수잔나)/ 도로테아 뢰슈만(백작부인)/ 제랄드 핀리(백작)/ 리닛 사함(케루비노) 외/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트 가든



OpusArte OABD 7033D [2Disc]

넵트렌코의 연인, 어윈 슈로트의 넘치는 매력을 만난다.

2006년 2월 코벤트가든 실황을 수록한 이 DVD는 가수들의 열연, 뛰어난 무대연출, 일상불란한 기악앙상블이 삼위일체를 이룬 최상의 공연을 수록하고 있다. 넵트렌코의 연인이라는 화제 덕분에 한층 더 유명해진 우루과이 출신의 기대주 어윈 슈로트가 한층 더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통해 매력만점의 피가로를 열연하였고, 미모와 음악성을 겸비한 매력만점의 소프라노 미아 페르손이 사랑스런 수잔나를 연기하였다. 이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 도로테아 뢰슈만은 연기와 노래 모두에서 최상의 백작부인을 들려주며, 중견 바리톤 제랄드 핀리의 음향한 백작 캐릭터 역시 출중하다. 주역 4인방을 든든히 보조하는 조연가수들의 앙상블도 빈틈이 없으며, 특히 영국이 자랑하는 지성파 테너 필립 랑그리지의 깜짝 변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데이비드 맥비카의 연출은 사실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연기와 곳곳에 삽입된 코믹한 연출을 통해 오페라 부파라는 이 작품의 본령을 충실히 재현해내었다. 탄탄한 앙상블로 우아하고도 세련된 음악드라마를 이끌어낸 안토니오 파파노의 지휘 역시 훌륭하다.



Opus ARTE www.opusar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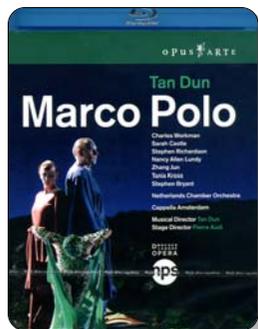
OpusArte OABD 7032D

**홈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디아나 담라우(그레텔)/ 앙겔리카 키르호술라거(헨젤)/ 안나 실라(마녀)/ 토마스 알렌(아빠)/ 엘리자베스 코넬(엄마) 외/ 콜린 데이비스/ 로알 오페라 코벤트가든

**최고의 가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기자기한 동화 오페라**

홈퍼딩크는 바그너의 제자였으며, 스승의 마지막 걸작 '파르지팔'의 완성에도 큰 몫을 했던 인물이다.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형제의 유명한 동화에 기초하여 완성한 3막의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로, 동요에서 빌려온 귀에 쏙 들어오는 친근한 선율들과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빼어난 오케스트레이션이 멋진 조화를 이룬 걸작이다. 본 DVD는 2008년 12월 로알 오페라 코벤트가든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신구세대가 조화를 이룬 화려한 캐스팅과 그 명성에 걸맞은 뛰어난 음악적 완성도를 자랑한다. 현존 최고의 밤의 여왕으로 각광 받고 있는 담라우가 뜻밖의 그레텔을, 옥타비안, 케루비노 등의 바지배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던 키르호술라거가 씩씩한 헨젤을 연기하였다. 공연당시 68세의 안나 실라와 64세의 토마스 알렌은 나이를 잊은 상상의 목소리와 연륜이 배어나오는 능숙한 연기로 극의 든든한 중심을 잡아준다. 어느덧 여든을 훌쩍 넘긴 노대가 콜린 데이비스 역시 노련한 통찰력과 꼼꼼한 세부묘사를 통해 이 걸작의 싱그러움 매력들을 유감없이 펼쳐 보인다.



OpusArte OA BD7029D

**로시니: 라 가제타**

**노벨상 수상작가 다리오 포가 연출한 로시니 전성기의 희극**

다리오 포는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전통을 잇는 이탈리아의 극작가이자 연출가, 음악가이다. 좌파 성향을 지녔지만 투사형이 아닌 풍자형 작가이며 놀라운 희극적 감각과 이단아적 상상력으로 유럽 문화의 한 축을 대표하는 천재로 불린다. 199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에도 '광대가 이 상을 받는 처음'이라는 재기 넘치는 연설로 큰 화제를 낳았다. 포는 오페라 연출도 한다. 특히 관심분야는 포와 여러 면에서 통하는 19세기 오페라의 천재 조아키노 로시니이다. <라 가제타>는 최고의 희극 <세비아의 이발사>에 이어서 작곡된 전성기의 작품이다. 신문 광고로 사윗감을 구하려는 돈 품포니오,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그의 딸 리제타의 얘기를 로시니 특유의 극장 감각으로 그려냈다. 다리오 포는 연출만이 아니라 무대장치와 의상까지 직접 맡아서 모든 면에서 창의적인 무대를 꾸몄다. 19세기와 20세기의 극예술 분야에서 기발함에 관한 한 최고의 두 천재가 만난 경이로운 산물이다.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전통 스타일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21세기형 <코지 판 투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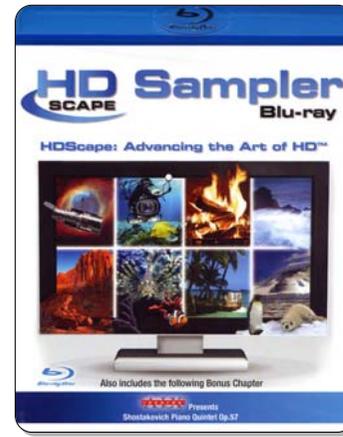
우리말로 "여자란 다 그래"로 번역되는 <코지 판 투테>는 사랑의 진정성으로 조소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무시되기도 했던 작품이다. 심지어 베토벤과 바그너도 "모차르트가 왜 그의 천재를 이룬 고약한 작품에 소진했을까?" 하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오페라처럼 남녀 문제에 대한 진실을 실감나게 다룬 작품은 달리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그 즐거운 전개에 난감해 하면서도 즐기기하는 심정으로 이 오페라를 즐기며 지금 당장이라도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감탄한다. 영국 국립 극장의 감독이자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연출했으며 영화감독이기도 한 니콜라스 하이트너는 지나친 현대적 해석을 배제하고 이 오페라의 고전적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연극인 출신답게 무척 상세한 연기와 밝은 남극적 풍취로 누구나 환영할 만한 <코지 판 투테>를 만들어 냈다. 2006년 여름 글라인드 본 페스티벌 실황. 거장 이반 피셔가 계몽시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21세기를 짙어질 젊은 가수들이 뛰어난 노래를 들려준다. 영상물로도 최상급이지만 음악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할 귀중한 산물이다.



OpusArte OABD 7035D [2Disc]



www.dvdinternational.com



DVDI 6999

**HD Blu-ray 샘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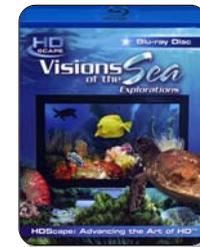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궁극의 화질로 다 볼 수 있는 블루레이 샘플러. 남극의 아름다움, 이국적인 바닷 속, 수족관, 하와이, 미국 남서부의 절경, 벽난로, 우주의 신비 등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주의 신비로움이 각 파트별로 샘플링 되어 있는 멋진 영상.



DVDI 6012

**천체의 이미지**

화려한 색채와 기하학적인 모양을 지닌 다양한 은하계를 근접 촬영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천체 영상 모음. 영상과 최상으로 잘 어울리는 멋진 선율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켜주는 유려한 배경 음악 웅장하고 풍부한 사운드. 쉽게 접하기 힘든 천체 영상들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어 과학 교육용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



DVDI 6020

**바다의 이미지**

탐험 고화질 부분에서 에 미상을 수상한 Anthony S. Lenzo 수중 비디오 및 HD카메라 장비를 활용하여 피지, 환상의 섬 보네르, 온두라스, 바하마의 산호초를 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산호초의 백화 현상 등을 HD로 탐험해 볼 수 있다.



DVDI 6021

**고요한 남극의 바다**

바다의 경치와 대양의 분위기를 담은 품의 나라로 당신을 이끌어줄 영상물. Southern Seas는 에미상 수상자인 필름 제작자 데이비드 헨년에 의해 고해상도의 화면으로 포착한 남극 바다의 곳곳의 이미지들을 담고 있다. 휴식음악의 대가인 테리 올드필드의 배경음악이 함께 한다.



DVDI 6010

**이국적인 바다 수족관**

열대 바다의 이국적인 물고기와 보기 힘든 귀한 바다 속 생물들이 한 장의 블루레이로 다 볼 수 있다.



DVDI 6013

**남극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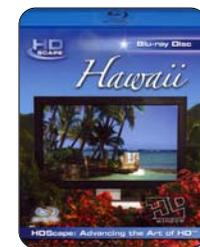
남극의 꿈은 남극반도와 남 조지아 섬, 그리고 팔크랜드 섬들의 자연을 담은 영상물. 5종류의 펭귄과 4종류의 바다표범, 사나운 바닷새들, 그리고 지구의 가장 스펙터클한 풍광을 담고 있다.



DVDI 6022

**대양 수족관**

파푸아 뉴기니의 위치에 환상의 섬 보네르 및 피지의 아름다움 및 신비로운 수족관을 볼 수 있는 영상물.



DVDI 6030

**하와이의 절경**

HD window Hawaii는 하와이 제도의 이국적인 멋진 경관들을 안방에서 경험하게끔 만든다. Dolby True HD 5.1 서라운드를 통해 흐르는 자연의 음향과 배경음악은 하와이의 멋진 경관을 더욱 감동적으로 와 닿게 할 것이다.



DVDI 6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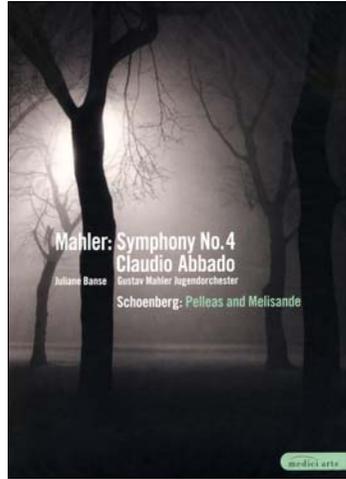
**미국 남서부의 거대한 자연**

아리조나, 뉴 멕시코, 캘리포니아 미국 남서부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자연의 깔끔한 배경음악 등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고화질, 고음질 등을 만끽하며 볼 수 있다.



## Medici Arts DVD

Medici Arts는 Euro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www.euroarts.com



Medici Arts DVD 2055488

### 말러: 교향곡 4번

#### 신베르크: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율리안 반제(sop)/ 클라우디오 아바도/ 구스타프 말러 유겐트오케스터

#### 무지크페라인을 감동의 도가니로 이끈 아바도의 말러 교향곡 4번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DVD 포맷 말러 교향곡 사이클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2006년 4월 빈의 무지크페라인에서의 실황인 이번 4번의 등장으로 이제 1번과 8번 두 작품만을 남겨둔 것이다. 9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말러 유겐트 오케스트라를 기용한 것으로, 아바도가 노구를 이끌고 갈고 다듬어 놓은 이들 젊은 연주자들은 스타급 아티스트들의 집합체인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개인기와 합주력을 이 음반을 통해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아바도 역시 절묘한 다이내믹컨트롤과 섬세한 세부조각을 통해 말러의 교향곡들 중 가장 투명한 텍스처를 자랑하는 이 작품의 묘미를 만족스럽게 표현해 내었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리트와 독일 오페라를 통해 각광 받고 있는 정상급 소프라노 율리안 반제의 우아한 가창을 통해 아름다운 천국의 정경이 펼쳐진다. 신베르크가 12음기법을 창시하기 이전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완성한 전형적인 후기낭만주의 대작 교향시인 '펠리아스와 멜리장드'가 함께 수록되었다. 연주가 끝난 뒤 열렬한 환호와 기립박수로도 모자라 객석의 모든 관객이 함께 발을 구르며 아바도에게 경의를 표하는 감동적인 순간까지도 온전히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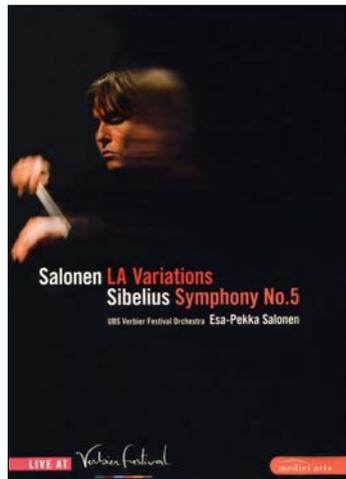
###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 살로넨 : LA 변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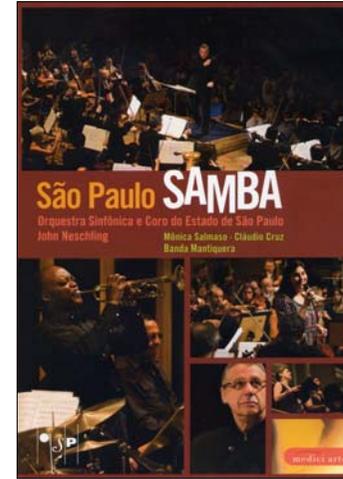
에사 페카 살로넨/ UBS 베르비에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 젊은 음악도들의 열정으로 빛어낸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

매년 여름마다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베르비에르에서는 정상급 클래식 거장들과 젊은 음악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대한 음악축제를 펼친다. 세계 각지로부터 이곳을 찾은 음악 유망주들은 스위스 굴지의 은행 UBS의 재정적 지원 아래 UBS 베르비에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의 비상설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된다. 본 DVD는 2007년 7월 베르비에르 페스티벌 중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핀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지휘자 에사 페카 살로넨의 지휘 아래 UBS 베르비에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젊은 기백으로 빛어낸 싱그러운 연주들을 만날 수 있다. 바쁜 지휘 활동 틈틈이 작곡가로도 활동해왔던 살로넨은 자신의 대표 관현악곡인 LA 변주곡과 모국의 위대한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을 이들과 함께 연주하였다. 젊은이들의 농익지 않은 연주답게 디테일은 부족한 편이나, 혼신을 다한 살로넨의 지휘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젊은 악단의 열정적인 연주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Medici Arts DVD 3078648



Medici Arts DVD 2057348

### 상파울루 삼바 콘서트

모니카 살마소(vocal)/ 반다 만티케이라/ 존 네슬링/ 상파울루 에스타도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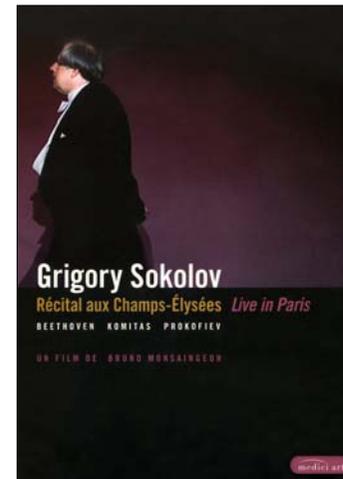
#### 열정의 나라 브라질에서 건너온 흥미만점의 삼바 콘서트

삼바와 축구의 나라 브라질과 클래식 콘서트는 왠지 어색한 단어조합 같다. 하지만 이 DVD는 대작곡가 빌라로보스를 배출했던 이 나라의 놀라운 음악적 잠재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흥과 열정의 화신과도 같은 브라질리언들은 클래식 콘서트까지도 신나는 삼바축제의 한마당으로 바꾸어놓았다. 2008년의 마지막 날 상파울루에서 펼쳐졌던 이 특별한 콘서트는 빌라로보스의 '소로스 10번'과 이웃 아르헨티나의 작품들인 히나스테라의 '말랑보'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과 같은 정통 라틴 클래식 레퍼토리들로 화려하게 시작된다. 브라질의 주요 음악상들을 휩쓸며 이 나라 대중음악의 대표아이콘으로 급부상한 모니카 살마소가 등장하면서 연주회장은 경쾌한 보사노바로 가득 채워지며, 브라질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재즈그룹 반다 만티케이라가 들려주는 열정적인 삼바리듬에 콘서트 홀의 열기는 점점 뜨겁게 고조되어간다.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을 흥겹게 넘나드는 크로스오버의 진정한 매력을 이 DVD를 통해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리 소콜로프: 파리 상젤리제 리사이틀 실황

#### 은둔의 피아니스트 그리고리 소콜로프를 바로 눈앞에서 만나

나이프 레이블로 선보되었던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2002년 파리 상젤리제 리사이틀 실황 DVD가 원 음원 소유권자인 이데탈 오디앵스의 자체 제작반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1966년 불과 16세의 나이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를 석권하였던 이 천재 피아니스트는 냉전기 동안 서방세계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으며, 서방 음악계에 자신의 진가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던 80년대 중반 이후에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극도의 스튜디오 녹음 기피증과 까다로울 정도로 신중한 연주회 선택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신비의 피아니스트라는 이미지로 남아있다. 소콜로프의 진지한 연주장면을 피아노 영상물의 대가 브뤼노 몽생종이 최근에서 섬세하게 포착해낸 본 영상물은 그간 등장했던 소수의 실황음반들로 미처 채워지지 못했던 이 연주자에 대한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다. 베토벤의 소나타 9,10,15번, 코커서스 일대의 민속음악에서 선율을 빌려온 아르메니아 출신 작곡가 바르다페트가의 여섯 개의 춤곡, 그리고 소콜로프의 정교한 기교와 강렬한 에너지가 한껏 발산되는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7번으로 프로그램이 알차게 구성되었으며, 앙코르로 연주된 쇼팽의 마주르카와 쿠프랭의 소품, 그리고 바흐의 전주곡 BWV855의 편곡 역시도 감동적이다.



Medici Arts DVD 3073888



Medici Arts DVD 2072368  
[2DVDs]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바르바라 프리틀리(피오르딜리지)/ 앙젤리카 키르히술라거(도라벨라)/ 보 스코부스(구글리엘모)/ 미카엘 사데(페란도)/ 모니카 바첼리(데스피나)/ 알레산드로 코르벨리(돈알폰소)/ 리카르도 무티/ 빈 슈타츠오퍼

**귀와 눈이 모두 즐거운 매력만점의 '코지 판 투테'**

'코지 판 투테'는 다 폰테 삼부작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음악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조를 비하하고 스와핑을 방불케 하는 발칙한 내용으로 인해 후대인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문제작이기도 하다. 1996년 빈의 고풍스런 테아터 안 더 빈에서 빈 슈타츠오퍼 팀에 의해 공연되었던 본 실황 DVD는 이 오페라의 매력을 가장 훌륭히 드러낸 프로덕션의 하나로 호평을 받았던 것이다. 본 영상은 화질과 사운드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음악과 연출의 완성도에서도 앞서 등장했던 무티의 두 영상물(83년 잘츠부르크, 89년 라스칼리)을 압도한다. 무티는 '코지 판 투테'의 스페셜리스트답게 작품의 생기로운 매력을 한껏 드러내며, 프리틀리, 키르히술라거, 사데, 스코부스로 이어지는 네 주역가수들은 명성에 걸맞은 뛰어난 개인기를 보여주며, 바첼리와 코르벨리의 감칠맛 나는 조역도 훌륭하다. 화사한 의상과 섬세한 무대미술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모네의 우아하고도 전통적인 연출도 충분한 시각적인 포만감을 제공한다. 16:9의 화면비의 영상이며, PCM 스테레오, 돌비 5.1, DTS 5.1의 오디오 포맷을 함께 제공한다.

**[ 보조자료 ]**

○ '코지 판 투테'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에게는 정조가 없다고 믿는 철학자 돈 알폰소는 자매를 사랑하는 두 남자와 내기를 건다. 그들은 군대에 소집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변장을 하고 상대방의 연인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정조를 강하게 지키던 자매는 이들의 막무가내식의 애정공세에 결국 무너져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다. 결혼식 직전에 자초지종이 밝혀지게 되고, 두 자매는 원래 연인들의 책망 속에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극이 마무리된다.

○ 본 영상물은 등장하는 가수들의 면면만으로도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베르디와 모차르트 양 쪽 모두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바르바라 프리틀리, 바지베역에 능하나 본 DVD에서는 우아한 여성미를 맘껏 뽐내는 앙젤리카 키르히술라거, 이 시대를 대표하는 돈조반니의 한 사람으로 각광 받은 덴마크의 바리톤 보 스코부스, 모차르트 오페라 스페셜리스트인 미카엘 사데, 현역 최고의 바소 부포 알레산드로 코르벨리, 바로크 오페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메조소프라노 모니카 바첼 리가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 La Scena Musicale의 리뷰어 스티븐 해빙턴은 다음과 같이 본 DVD를 호평하였다. "뛰어난 솔리스트 진용, 무티의 탁월한 지휘, 마우로 카로시의 훌륭한 무대미술, 오데테 니콜레티의 멋진 의상, 음악적으로 작품에 해박한 시모네의 연출이 어우러졌다. - 종략- 기민하고도 스타일리시하며, 지속적으로 즐거운 이 프로덕션은 오페라가 궁극적인 종합예술임을 증명하는 좋은 예와도 같다."



Medici Arts DVD 2056008  
[2DVDs]

**바그너: 로엔그린**

존 트렐리벤(로엔그린)/ 에밀리 맥기(엘자)/ 루아나 드볼(오르투르트)/ 한스 요아힘 케텔젠(텔라문트)/ 라인하르트 하겐(하인리히)/ 제바스티안 바이글/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바그너의 로엔그린을 당혹케 만들었던 21세기 최고의 문제 연출작 DVD로 등장하다.**

함부르크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봄의 제전'의 초연 당시를 방불케 하는 격렬한 찬반논쟁을 낳았던 피터 콘비츠니의 로엔그린 프로덕션이 DVD로 발매되었다. 2006년 7월 리세우장에서 리바 이발을 수록한 것으로, 왜 이 프로덕션이 여러 바그너연들을 그토록 분노케 만들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 로엔그린'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프로덕션은 이 오페라의 배경인 중세의 브란트를 현대의 한 초등학교 교실로 바꾸어놓았다. 브란트의 귀족들은 나무칼을 들고 설치는 철없는 '초딩'들로, 엘자는 소심한 왕따 여학생으로, 오르투르트와 텔라문트는 완력으로 이 교실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일진들로 제각각 모습을 바꾸었고, 로엔그린이라는 한 얼른 어른이 이 교실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급파된다. 콘비츠니는 이 연출을 통해 바그너가 주창했던 위대한 게르만의 정신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강력히 설파하고 있다. 특히 위대한 독일의 영도자를 맞으라는 로엔그린의 일장 연설 이후 기관총을 들고 등장하는 꼬마 고트프리트의 모습은 히틀러라는 함양 미달의 지도자에 열광했던 독일국민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듯하다.

**[ 보조자료 ]**

○ 바그너가 구상했던 이 오페라의 본 내용을 대략 다음과 같다. 독일 왕 하인리히는 군대모집을 위해 브란트를 찾는다. 이곳의 섭정 텔라문트는 죽은 영주의 딸 엘자를 동생 고트프리트를 살해한 혐의로 왕에게 고발한다. 때맞춰 백조가 이끄는 배를 타고 온 정체불명의 기사가 텔라문트를 내쫓고 엘자의 마음을 차지한다. 기사 역시 엘자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정체를 공금해 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인다. 텔라문트의 아내 오르투르트는 엘자에게 남편에 대한 의심을 날게 만들고, 결국 첫 날밤 엘자는 금기의 질문을 하고 만다. 기사는 자신이 성배의 수호자 로엔그린임을 고백하고, 오르투르트가 마법으로 백조로 변신시켰던 고트프리트를 제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뒤 엘자에게 작별을 고한다. 상심한 엘자가 숨을 거두면서 막이 내린다.

○ 페터 콘비츠니는 내놓은 프로덕션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연출가로 유명하다. 90년대 중반 이후 그가 내놓은 일련의 바그너 프로덕션들(95년 파르지팔 -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97년 탄호이저 - 드레스덴 켐퍼오퍼, 98년 로엔그린 - 함부르크, 99년 트리스탄과 이졸데 -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2000년 신들의 황혼 -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퍼)은 모두가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함부르크에서 공개된 이후 코펜하겐과 바르셀로나에서 연이어 리바이벌되었던 로엔그린은 그 논란의 정점을 제공했던 문제작이었다. '해체적인 해석을 통해 원작에 새 생명을 부여한 연출'이라는 극찬에서부터 '바그너를 증오하는 이의 우스꽝스러운 패러디'라는 저주에 가까운 혹평까지 함께 받았었다.



Opus Arte DVD OA1011D  
[2DVDs]

**훈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디아나 담라우(그레텔)/ 앙젤리카 키르호술라거(헨젤)/ 안나 실라(마녀)/ 토마스 알렌(아빠)/ 엘리자베스 코넬(엄마) 외/ 콜린 데이비스/ 로얄 오페라 코벤트가든

**최고의 가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기자기한 동화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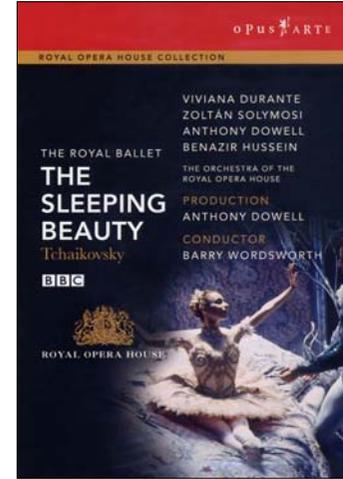
훈퍼딩크는 바그너의 제자였으며, 스승의 마지막 걸작 '파르지팔'의 완성에도 큰 몫을 했던 인물이다.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형제의 유명한 동화에 기초하여 완성한 3막의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로, 동요에서 빌려온 귀에 쫓삭 들어오는 친근한 선율들과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빼어난 오케스트레이션이 멋진 조화를 이룬 걸작이다. 본 DVD는 2008년 12월 로얄 오페라 코벤트가든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신구세대가 조화를 이룬 화려한 캐스팅과 그 명성에 걸맞은 뛰어난 음악적 완성도를 자랑한다. 현존 최고의 밤의 여왕으로 각광받고 있는 담라우가 뜻밖의 그레텔을, 옥타비안, 케루비노 등의 바지배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던 키르호술라거가 씩씩한 헨젤을 연기하였다. 공연 당시 68세의 안나 실라와 64세의 토마스 알렌은 나이를 잊은 상상한 목소리와 연륜이 배어나오는 능숙한 연기로 극의 든든한 중심을 잡아준다. 어느덧 여든을 훌쩍 넘긴 노대가 콜린 데이비스 역시 노련한 통찰력과 꼼꼼한 세부묘사를 통해 이 걸작의 싱그러움 매력들을 유감없이 펼쳐 보인다.

[ 보조자료 ]

○ 독일의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는 현역 최고의 밤의 여왕으로 각광받고 있다. 코벤트가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빈 국립오페라, 메트,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등의 최고의 오페라무대에서 밤의 여왕을 노래하였고, 콜린 데이비스와 함께한 2001년 코벤트가든 실황과 M22에 포함된 무티 지휘의 200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은 DVD로도 발매되었다. 밤의 여왕 외에도 콘스탄테, 루치아, 로지나, 질다, 올림피아, 오스카 등의 콜로라투라배역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조피, 파미나와 같은 리릭 영역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앙젤리카 키르호술라거는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 모차르트음악과 빈 음악원에서 음악을 배웠다. 1993년 그라츠 오페라에서 '장미의 기사'의 옥타비안으로 데뷔한 이래 현역 최고의 바지배역 가수로 각광받고 있다. 빈 슈타츠오퍼의 단골 가수이며, 코벤트가든, 라스칼라, 메트, 파리 국립오페라 등의 최고의 오페라무대를 누벼왔으며, 리트와 콘서트가수로도 각광받고 있다. 바지배역 외에도, 체를리나, 도라벨라, 로지나, 멜리장드와 같은 역할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 1940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안나 실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그너 히로인이었다. 그리고 베르크의 두 오페라(룰루, 보체크)에서도 빼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1960년 '화란인'의 젠타로 바이로이트에 데뷔한 이래, 엘자, 엘리자베트, 비너스, 에바, 이졸데 등의 주요 바그너 배역들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살로메, 엘렉트라, 피델리오 등의 무거운 배역들로 호평을 얻었다. 예순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쿠르트 바일, 아나츠크, 차이코프스키, 훈퍼딩크 등의 작품을 통해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Opus Arte DVD R3107D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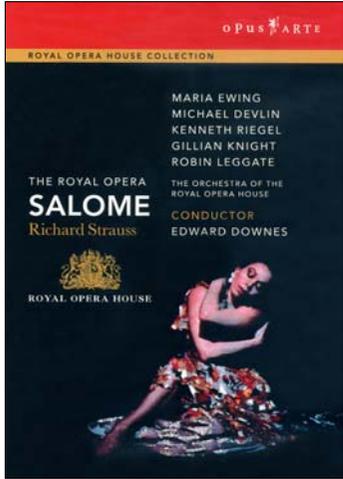
**고전발레의 교과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1994년 로열 발레 실황**

고전 발레의 가장 교과서적인 명작은 무엇일까? 당연히 차이코프스키의 곡을 사용한 작품 중에 있을 것이고 아마도 <백조의 호수> 아니면 <호두까기 인형>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답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다. 고전 발레를 대표한 안무가 마리우스 피티파는 자신의 발레 인생을 총결산하는 작품으로 사를 페로의 동화에 기초한 이 발레를 선정하고 아주 꼼꼼하게 각각의 춤의 길이와 분위기까지 지정한 대본을 작성하여 차이코프스키에게 작곡을 부탁했다. 다시 말해 장면마다 미리 안무를 거의 구상한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피티파의 오리지널에 손을 대는 것이 가장 위험한 명작으로 평가된다. 본 영상물은 1994년 코벤트 가든의 로열 발레 실황을 담은 것으로 당시 이 발레단의 최고 스타였던 이탈리아 출신의 비비아나 두란테가 타이틀 롤인 오로라 공주를 춘다. 아담한 체격의 두란테는 16세의 공주 역에 딱 어울린다. 피티파의 오리지널 안무에 최대한 충실하되 프레데릭 애쉬튼, 케네스 맥밀란 등 영국 안무가가 약간의 손길을 입힌 프로덕션이지만 마리아 비외른손이 담당하 무대장치만큼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 보조자료 ]

○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프롤로그와 3막 구성이지만 프롤로그가 30분에 달하여 사실상 4막에 해당하는 대작이다. 또한 마지막 제3막은 화려한 불거리가 이어지는 장대한 결혼식 디베르티스망으로 유명하다. 여기에는 동화의 여러 주인공들, 예컨대 파랑새, 장화를 신은 고양이, 빨간 두건 등이 등장한다. 물론 최고의 백미는 오로라 공주와 플로리문트 왕자의 그랑 파드되이다.

○ 오로라 공주 역의 비비아나 두란테(1967~)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이다. 고향에서 기초를 닦은 후 런던의 로열 발레 스쿨에서 수학했으며 1984년 로열 발레에 입단하여 1989년 프린시펄(주역무용수)로 승진했다. 고전 발레의 우아함과 잘 닦인 테크닉을 자랑하며 케네스 맥밀란의 드라마 발레 <마농> <마이얼링> <겨울의 꿈> <아나스타샤>에서도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다. 1996년부터는 동 발레단의 객원 주역으로 몰러나 다른 발레단, 예컨대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와 일본의 K-발레 등에 출연했다. 왕자 역의 졸탄 솔리모시는 비비아나 두란테와 동갑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태생이다.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을 거쳐 1992년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활약했으며 로열 발레에 이어 영국 국립 발레에도 몸을 담았다가 헝가리로 귀환했다.



Opus Arte DVD R3108D

R. 슈트라우스: 살로메

육감적 소프라노 마리아 유잉이 펼친 충격적인 '일곱 베일의 춤'

오스카 와일드가 성서와 야사를 토대로 재창조한 <살로메>를 독일어로 번역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는 지극히 퇴폐적이다. 유대를 다스리는 헤로데는 왕비가 데려온 의붓딸의 관능미에 사로잡혀 있고, 살로메 역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능글한 육체에 반한 것은 물론 자신을 경멸하는 예언자를 정복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그의 잘린 목을 요구한다. '일곱 베일의 춤'은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춤을 추라는 헤로데의 요청에 살로메는 어떤 요구든 들어준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베일)을 하나씩 서서히 벗어내면서 의붓아버지의 훑쳐보기 정욕을 한껏 달구는 것이다. 실연에서는 살로메 역의 가수가 옷을 벗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정공법을 택한 가장 유명한 사례가 1992년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이다. 두통한 입술과 관능적인 몸매의 육감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유잉은 당시 남편 피터 홀이 연출한 무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을 한참이나 드러낸 채 일곱 베일의 춤을 끝내 대단한 화제를 이끌어냈다. 본 영상물은 바로 그 실황이다. 공연 자체의 음악적 완성도도 대단히 높은 고전적인 자료로서 반드시 소장해야 할 DVD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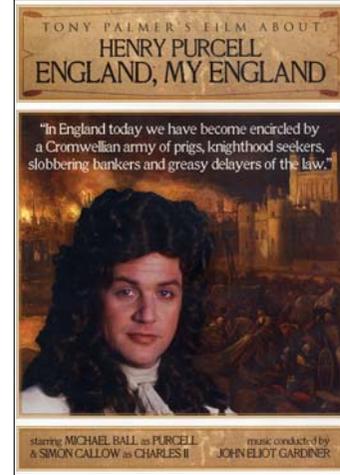
[ 보조자료 ]

○ <살로메>는 성서상의 인물로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실제 성서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마태복음 제14장의 기록을 보면 유대왕 헤로데가 생일을 맞았는데 왕비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 중에 춤을 추어 해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헤로데는 친딸이 아닌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청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한다. 딸은 세례 요한에게 양심을 품은 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죄수로 투옥된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내달라고 청한다. 왕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았으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한 바람에 마지못해 요한의 목을 베어 가져오고 소녀는 이를 제 어머니에게 갖고 간다고 되어 있다. 즉 성서에 따르면 요한의 죽음을 원한 것은 헤로디아이고 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당대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의 처형을 명한 것은 헤로데였으며 이는 민중의 폭동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헤로데의 딸 중에 살로메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여하간에 역사적 고증과 관계없이, 또 성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춘 여자의 이름은 살로메인 것처럼 야사를 통해 전해졌다.

○ '일곱 베일의 춤' 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살로메가 피범벅이 된 요한의 잘린 목을 들고 한참이나 애무하는 다음 장면이다. 이는 곧 모든 사람에게 구역질을 나게 함으로써 살로메 자신의 죽음을 부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Tony Palmer's Film DVD

www.tonypalmerdvd.com



Tony Palmer's DVD TPDVD151

헨리 퍼셀: 영국이여, 나의 영국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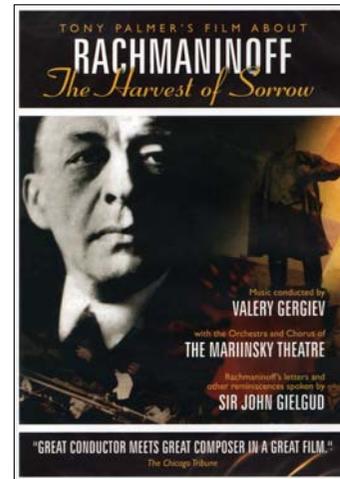
토니 팔머와 존 엘리엇 가디너가 퍼셀의 시대로 뛰어들다

2009년은 헨리 퍼셀 탄생 350주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심지어 부친이 누구인지 모친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것이 없다. 생애 역시 알려진 것은 거의 없고 한창 나이에 맞이한 요절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소문들이 떠돌 뿐이다. 음악 다큐멘터리의 일인자 토니 팔머가 미스터리인 인물 헨리 퍼셀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나 워낙 정보가 귀한 바람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냈다. 1960년대의 런던 왕립 극단의 단원들이 퍼셀 시대에 영국을 통치한 찰스 2세(청교도 혁명으로 처형된 찰스 1세의 맏아들이며 대륙으로 망명했다가 1660년에 귀환)에 관한 연극을 공연하면서 그 당시 영국 문화를 음악 쪽에서 대표한 퍼셀의 삶까지 추적하는 것으로 말이다. 즉 두 시대가 병치된 구조인데, 특히 17세기 후반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바로크 음악의 거장 존 엘리엇 가디너가 이끄는 몬테베르디 합창단과 잉글리쉬 바로크 솔로이스츠, 여기에 수잔 그레이엄, 린 도슨, 낸시 아르젠타, 제임스 바우만, 마이클 찬스 등 일급 가수들이 참여한 압도적인 음악이 극적으로는 다소 공색한 아쉬움을 채워 놓고도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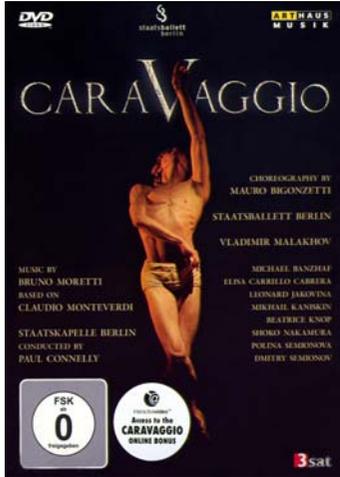
라흐마니노프 다큐멘터리

발레리 게르기에프와 토니 팔머가 함께 만든 라흐마니노프 다큐멘터리

음악 다큐멘터리의 거장 토니 팔머의 1998년 필름인 'The Harvest of Sorrow'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에 관한 가장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손꼽힌다. 이 필름의 산파역할을 했던 이는 다름 아닌 발레리 게르기에프였다. 그는 팔머에게 라흐마니노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고, 팔머는 음악을 게르기에프가 맡아준다는 조건으로 이 작업에 착수하였다. 라흐마니노프의 친손자인 알렉산더의 호의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사적인 편지들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촬영했던 진귀한 필름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그를 토대로 이 다큐멘터리를 구성하였다.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오케스트라 외에도,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 미하일 플레트네프, 페터 아블론스키, 알렉산더 토라체 등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들의 단편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오리엔트 특급 살인', '불의 전차', '사막의 라이언' 등에 출연했던 영국의 노배우 존 길거드(당시 97세)가 라흐마니노프의 편지들을 낭송하였다.



Tony Palmer's DVD TPDVD152



Arthaus DVD 101 463

카라밧시오 [Ballet]

미술 역사상 가장 베일에 싸인 화가를 다룬 흥미만점의 발레

1571년에 태어난 이 화가의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였다. 태어난 마을의 이름을 따서 '카라밧시오의 미켈란젤로'라 불리다가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미켈란젤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그냥 카라밧시오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는 미술계에 해성과 같이 등장하여 6년간 로마 최고의 화가로 칭송을 받으면서도 위험적인 성격의 인물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는데, 과연 1606년 현재의 테니스에 해당하는 경기를 하던 도중 상대방을 살해하여 사형을 언도받았다.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암살자를 피해 이탈리아 반도 곳곳과 섬을 전전하다가 1610년에 세상을 떠났다. 빛과 어둠을 대비시킨 조명효과와 사실적인 묘사로 바로크 양식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한 카라밧시오의 풍운아적 삶과 예술이 현재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안무가 마우로 비곤체티와 베를린 국립 발레단의 협력 하에 발레로 재탄생했다. 동 발레단의 예술감독이자 남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소유했다는 슈퍼스타 블라디미르 말라호프가 지극히 매력적이면서도 예술적 고통에 시달리는 타이틀 롤을 맡았고, 1600년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작곡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음악을 브루노 모레티가 재구성하여 당대의 분위기를 잘 살려냈다.

[ 보조자료 ]

○ 당대에 카라밧시오를 묘사한 글을 보면 몇 주간 열심히 일해서 작품을 끝내면 친구와 함께 갈을 들고 여기저기 으스스대 다니다가 싸움판에 끼어드는 인물이라고 적혀있다. 이런 버릇은 도피 행각을 벌이던 몰타에서, 나폴리에서도 반복되었고 1609년에는 그의 뒤를 쫓던 살인청부업자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열병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한다. 화가로서 로마에서의 업적은 미술사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킬 정도였으나 사망 후 오랫동안 잊혔다가 20세기에 들어서 재발견되어 거장으로 평가되었다.

○ 안무가 마우로 비곤체티(1960~)는 무용수로 출발하여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무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아테르발레토를 이끄는 동시에 유럽, 남미, 미국의 여러 발레단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이탈리아 작곡가인 브루노 모레티와 각별한 협력관계에 있다.

○ 타이틀 롤을 맡은 블라디미르 말라호프(1968~)는 1992년(24세)부터 서구에 진출하여 완벽하게 아름다운 신체조건을 잘 사용한 감각적인 춤으로 특히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다시 활동의 중심을 서유럽으로 옮기고 안무가로서, 발레단 예술감독으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Arthaus DVD 101 355  
[2DVDs]

바그너: 발퀴레

에린 케이브스(지그문트)/ 키르슈텐 블랑크(지글린데)/ 캐서린 포스터(브릴힌데)/ 레나투스 메사르(보탄)/ 히데카츠 츠마야(훈딩) 외/ 칼 세인트 클레어/ 바이마르 슈타츠크펠레

문화 도시 바이마르의 저력을 보여준 화제의 반지 프로덕션

중부독일의 문화도시 바이마르는 바그너가 '니벨룽의 반지'의 아이디어를 처음 품었던 도시다. 그로부터 150여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도시는 전유럽의 바그너러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화제의 반지 프로덕션을 만들어내었다. 바이마르 슈타츠크펠레의 음악감독 칼 세인트클레어와 연출가 미카엘 솔츠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이 프로덕션은 독일의 중소규모 극장의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었던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발퀴레'는 반지 연작들 중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손꼽히며, 1막과 3막은 콘서트형식으로도 자주 연주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솔츠는 이 거작의 씨앗이 되었던 '지크프리트의 죽음'의 전주곡을 보탄일족의 가정음악회와 같은 형태로 무대에 올리며 이 작품을 시작한다. 이어 알베리히의 손에 이끌려 등장하는 꼬마 하겐의 단발마와 같은 비명과 함께 이 혼돈의 드라마가 극적으로 시작된다. 솔츠는 마임을 통해 리브레토에 직접 묘사되지 않은 이 작품의 뒷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으며, 더 이상 노래할 것이 없는 로게, 프르, 돈너와 같은 배역들도 마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극의 전개에 한 몫을 한다.

[ 보조자료 ]

○ '발퀴레'는 '니벨룽 반지'의 첫 번째 밤을 위한 3막의 뮤직드라마다. (개시작인 '라인골프'는 엄밀히 말해 시리즈의 전야를 위한 작품이다.) 신들의 몰락을 염려한 보탄은 인간과의 사이에서 지그문트와 지글린데라는 쌍둥이남매를 얻는다. 남매는 어려서 서로 이별하였고, 지글린데는 훈딩의 아내가 되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지그문트는 지글린데의 집을 우연히 찾게 되고, 이들은 서로에게 반한다. 남매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를 향한 그들의 열망은 꺼지지 않는다. 둘을 야반도주하고 아내를 뺀 훈딩은 보탄의 아내 프리카에게 하소연한다. 프리카는 보탄에게 이 사건을 추궁하고, 궁지에 몰린 보탄은 영웅들의 영혼을 소환하는 일을 하는 자신의 딸인 발퀴레 중에서도 가장 총애하는 브릴힌데를 불러 지그문트를 제거할 것을 명한다. 지그문트를 찾은 브릴힌데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 연민을 품게 되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다. 노한 보탄은 직접 지그문트를 살해하고, 지글린데는 지그문트의 씨를 복중에 품고 도망친다. 보탄은 자신을 배반한 브릴힌데를 마법의 불 속에 가두며 이 작품이 마무리된다.

○ 연출가 미카엘 솔츠는 함부르크 예술학교(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Hamburg)에서 무대연출을 전공하였다. 카펠 국립극장에서 연출실무를 쌓았으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에센의 알토 극장의 예술감독을, 2001년부터 작년까지는 바이마르 국립극장의 예술감독을 역임하였다. 1998년 그가 연출한 폴랑의 오페라 '카르멜수녀들의 대화'가 신세대 오페라연출가들을 위한 베를린의 괴츠 프리드리히 재단상을 석권하면서, 독일 오페라 연출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 지그문트를 노래한 미국 테너 에린 케이브스는 바리톤에서 테너로 전향한 뒤 드라마틱 테너 배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젊은 가수다. 케이브스는 앞서 라인골프에서는 로게를 노래했다. 라인골프에서 파츠트를 맡았던 독일 바리톤 레나투스 메사르가 마초풍의 보탄을 연기하였다. 지글린데를 노래한 독일 소프라노 키르슈텐 블랑크는 처음 콜로라투라로 캐리어를 시작하였지만, 드라마틱 분야에서 자신의 진가를 재발견한 가수다. 지글린데, 젠타, 엘자, 엘리자베트와 같은 주요 바그너배역들과 레오노레, 투란도트와 같은 드라마틱 배역들로 각광받았다.



Arthaus DVD 101 357  
[2DVDs]

**바그너: 지크프리트**

온니 반 할(지크프리트)/ 프리더 아우리흐(미메)/ 토마스 뢰베스(보탄)/ 히데카즈 츠마야(파프너)/ 캐서린 포스터(브륄힐데) 외/ 칼 세인트 클레어/ 바이마르 슈타츠키펠레

**시공을 초월한 독특한 배경 위로 펼쳐지는 영웅 지크프리트의 성장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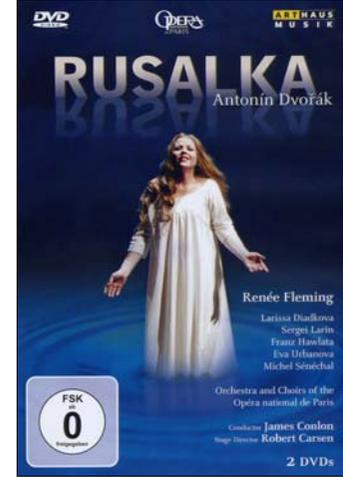
바그너는 1840년대 초반부터 복구와 튜튼 신화에 몰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서사극을 완성할 것을 결심하였다. '지크프리트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오페라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시작했지만, 4개의 오페라로 이어지는 '니벨룽의 반지'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확대되었다. '지크프리트'는 4부작의 세 번째 작품으로 천방지축의 소년 지크프리트가 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다룬 일종의 성장드라마와 같은 작품이다. 많은 화제를 낳으며 바이마르 국립오페라의 저력을 과시했던 미카엘 술츠의 이 프로덕션은 여러 참신한 시도로 이 거작을 재조명하였다. 보통 미메와 지크프리트의 2인극으로 전개되는 1막에서 술츠는 파프너, 알베리히, 하겐, 보탄 등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함께 무대에 올려 이야기의 배경을 시각적으로 함께 설명해주며, 돈너, 프르, 로게 역시 마임을 통해 극의 전개에 한 몫을 한다. '라인골트'에서 보탄과 알베리히를 맡았던 두 가수의 역할을 이 작품에서 맞바꿈으로써 일종의 역할극이라는 자신의 콘셉트를 지속시켜 나가며,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의인화된 브륄힐데의 말 그라네와 숲속의 새에 대한 재해석 역시 신선하다.

[ 보조자료 ]

○ '지크프리트'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크문트가 보탄에게 살해될 때 브륄힐데의 도움으로 그곳을 탈출한 지글린데는 미메의 도움을 받아 지크문트의 유복자 지크프리트를 낳은 후 사망한다. 미메의 손에 천방지축으로 길러진 지크프리트는 아버지가 남긴 부러진 칼을 이어붙인 뒤 파프너가 지키는 황금과 반지를 찾아 모험 길에 오른다. 용으로 변신한 파프너를 단칼에 물리친 지크프리트는 새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고 전리품을 가로챈 미메의 계획을 간파하고 미메마저 살해한다. 새의 인도로 마법의 불속에서 잠자고 있는 브륄힐데를 발견한 지크프리트는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는 보탄의 창을 부러뜨리고 브륄힐데를 잠에서 깨운다. 둘의 운명적인 결합과 함께 이 오페라의 막이 내린다.

○ 미국 지휘자 칼 세인트 클레어는 번스타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1990년 오렌지 카운티 기반의 퍼시픽 심포니의 음악감독을 맡으며 미국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고, 1998년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수석객원지휘자를 맡으며 유럽 음악계로도 진출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바이마르 슈타츠키펠레의 음악감독을 맡았고, 2008년부터는 베를린 코미세오퍼의 음악감독으로 재임 중이다.

○ 지크프리트를 노래한 네덜란드 출신의 테너 온니 반 할은 1993년 덴마크 왕립 오페라에 합류하면서 오페라 캐리어를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지크프리트, 발터, 에릭 등의 바그너 배역들과 플로레스탄, 카바라도시와 같은 배역들로 호평을 받았고, 함부르크에서 큰 화제를 낳았던 페터 콘비츠니의 로엔그린 프로덕션에서 타이틀 롤을 맡음으로써, 바그너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브륄힐데를 노래한 영국 소프라노 캐서린 포스터는 간호사로 활동하다 성악으로 돌아선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북아일랜드 오페라에서 밤의 여왕으로 첫 프로 데뷔를 하였고, 초반에는 모차르트 전문의 콜로라투라 가수로 각광받았다. 2001년부터 바이마르 슈타츠키펠레의 주역가수로 활동하였으며, 이때부터 보다 드라마틱한 역할들에도 도전하기 시작했다. 브륄힐데, 젠타, 레오노레, 아비가일, 토스카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Arthaus DVD 107 031  
[2DVDs]

**드보르작: 루살카**

**드보르작 100주기를 기념할만한 르네 플레밍의 감동적 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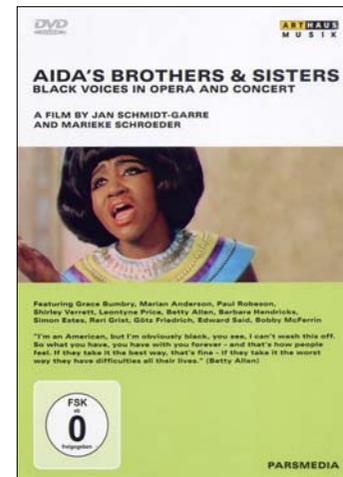
2004년 5월 1일은 동유럽을 대표하는 안토닌 드보르작 서거 100주년이 되는 날! 그러기에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가장 풍요로운 음성의 소유자로 꼽히는 르네 플레밍의 <루살카>(2002년 6월 실황)야말로 이를 기념하기에 최적일 것이다. 더군다나 플레밍은 이 타이틀롤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역이라고 당당히 밝혀왔지 않은가? 과연 그라모폰 상을 거머쥔 1998년 음반(DECCA)보다도 더욱 풍부한 감성이 돋보인다. 대표 아리아 '달에게 부치는 노래'는 한마디로 경이로우며, 예지 바버(마녀) 역의 러시아 메조소프라노 라리사 디아코코바의 놀라운 음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물의 요정 루살카가 인간인 왕자를 사랑하여 마법의 힘으로 인간의 몸을 얻지만 끝내 버림받아 자연의 품으로 복귀하고, 뒤늦게 루살카의 사랑을 갈구하는 왕자는 그 죄값으로 루살카의 품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동화적 내용이지만, 파리 국립 오페라의 공연은 심리적 환상으로 이런 줄거리를 해석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출 경향을 잘 보여준다.

(( TDK DVUS-OPRUS과 동일영상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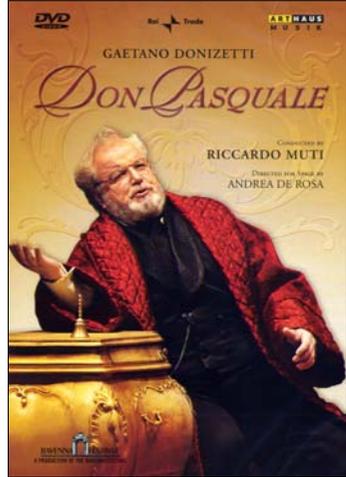
**아이다의 남매와 자매들**

**보수적인 성악계에 돌풍을 일으킨 미국 흑인 성악가들의 종합기록**

오페라 <아이다>는 고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전쟁을 소재로 한 오페라이며 에티오피아 공주인 주인공 아이다는 흑인 여성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온타인 프라이스가 1958년 빈 국립 오페라에서 이 역을 부르기 이전에 메이저 오페라하우스가 그 역을 흑인 소프라노에게 맡기는 경우는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영상물에는 1955년 흑인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섰던 마리안 앤더슨(비록 조역이었지만)을 필두로 레온타인 프라이스, 그레이스 범브리, 셸리 버켓, 바바라 헨드릭스, 레리 그리스트 등 전설적인 흑인 디바의 노래, 뿌리 깊은 편견을 뚫고 성악계의 중심에 도달하고자 투쟁했던 그들의 인터뷰가 풍부하게 담겨있다. 그렇지만 남자 성악가 중에도 중요한 흑인들이 없지 않다. 냉전 시대에 소련 공연에도 나섰던 베이스 폴 로빈슨이 그 원조에 해당할 것이고 바이로이트 무대에는 강건한 음성으로 무장한 사이먼 에스 테이트가 섰다. 성악가는 아니지만 팝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가수 바비 맥퍼린도 잠시 모습을 보인다. 이 자료를 보고 싶노라면 흑인 성악가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Arthaus DVD 101 367



Arthaus DVD 101 303

도니체티: 돈 파스칼레

도니체티의 정통 오페라 부파! 늙은 구두쇠가 임자를 제대로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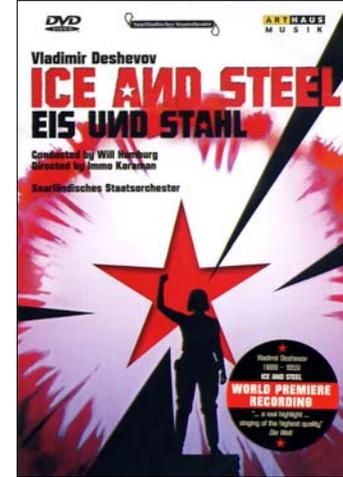
가에타노 도니체티는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인 동시에 희극적 소재를 다루는데에도 능통했다. 그 삼대 걸작이 훈훈한 목가극인 <사랑의 묘약>, 파리 극장가를 겨냥한 불어 오페라 <연대의 딸>, 그리고 이탈리아 정통 오페라 부파로 회귀한 만년의 걸작 <돈 파스칼레>다. 이중 음악적인 면에서는 <돈 파스칼레>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 돈이 아까워 결혼도 하지 않은 늙은 구두쇠 돈 파스칼레는 재산을 물려줄 조카 에르네스토가 가난한 과부와 결혼한다고 하자 차라리 자기가 늦장가를 들겠다며 친구 말라테스타 박사의 여동생을 소개받는다. 그러나 신분을 속인 이 여자야말로 에르네스토가 사랑하는 노리나이다. 노리나는 순진한 척 하고 가짜 공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돈 파스칼레와 결혼하지만 식이 끝나자마자 낭비벽이 엄청난 여인으로 돌변하여 돈 파스칼레를 절망에 빠뜨리는데...

가장 뛰어난 바소 부포(희극적인 베이스)로 정평 있는 클라우디오 데스데리가 타이틀 롤을 맡고 거장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2006년 라벤나 페스티벌 실황이다. 노리나를 부른 이탈리아의 젊은 소프라노 라우라 조르다노의 매력은 보는 이를 사로잡을 것이다.

[ 보조자료 ]

○ 이탈리아 정통 희가극인 오페라 부파의 공식은 젊은 남녀의 사랑을 남자의 부친이나 삼촌, 혹은 여자의 부친이나 후견인이 방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방해하는 남자 역을 바소 부포가 맡아 음악적인 중심은 물론 극적으로도 놀림감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 대부분의 사건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실내극이란 특징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야외에서 벌어지는 목가극인 <사랑의 묘약>은 정통성을 얻지 못한다. 한편 <연대의 딸>은 애당초 불어로 작곡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오페라 부파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오로지 <돈 파스칼레>만이 모차르트와 로시니의 가장 뛰어난 오페라 부파에 필적하는 정통성을 갖춘 것이다.

○ 클라우디오 데스데리(1943~)는 오페라 부파를 상징하는 베이스의 빠른 패시지를 가장 탁월하게 소화하는 가수일 것이다. 또한 개성있는 음색을 지녀 모차르트, 로시니의 희가극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우라 조르다노(1979~)는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태생이다. 고향에서 열린 콩쿠르를 2년 연속 석권하고 2004년 라 스칼라에 데뷔하면서 리카르도 무티의 주목을 받았다. 깜찍한 외모와 재기 넘치는 연기력을 바탕으로 가벼운 소프라노 리리코 역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



Arthaus DVD 101 323

데세포프: 얼음과 강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 오페라가 독일 자르브뤼켄에서 부활하다

1921년 3월, 페트로그라드(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섬에 위치한 크론스타트에서 해군 병사 및 그 동조 세력이 볼셰비키 정권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 한때 혁명세력의 전위부대이기도 했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자 러시아 혁명의 당위성조차 부인하고 봉기한 것이다. 당시 소비에트의 전쟁부 장관이었던 트로츠키는 협상이 실패하자 곧 강경진압에 나섰다 프랑스 작곡가 다리우스 미요로부터 '천재이며 지극히 독창적'이라는 격찬을 받았던 블라디미르 데세포프(1889~1955)는 1929년에 이 소재를 이용한 4막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오페라를 작곡했다. 해군의 반란에 맞서 인군 철강공장의 노동자들이 나서서 제압한다는 오페라 대본은 지극히 과장된 것이지만 볼셰비키 혁명에 불만을 품은 반란세력과 철강공장 일부 노동자의 입장을 1막과 2막에서 사실적으로 다룬 점은 당시 소비에트의 분위기로 볼 때 놀라운 일이다. 본 영상물은 2007년 독일 자르브뤼켄 국립 오페라 실황이다. 해외공연까지 염두에 둔 짜임새 있는 무대와 잘 훈련된 성악진이 주목의 대상이다. 물론 연출자는 마지막 피날레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극복을 꾀한다. 주역급은 아니지만 한국 성악가가 5명이나 출연한 점도 관심의 대상이다.

[ 보조자료 ]

- [줄거리] (1막) 1921년, 한창 추운 페트로그라드의 암시장이다. 잡화부터 마약까지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는 가운데 민중들의 삶은 피폐되어 있고 배고픔에 지친 그들은 볼셰비키 정권에 대한 불평도 숨기지 않는다. 이곳에 어슬렁거리던 크론스타트의 선원 댜첸코는 비밀경찰과 시비가 붙은 끝에 그를 살해하고 만다. 반란의 동기가 마련된 것이다.
- (2막) 배고픔에 대한 불만은 인군의 철강공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편에서는 빵을 주지 못하는 혁명 정부에 불만을 터뜨리려는 하던 다른 한편에서는 일을 해야만 빵이 생긴다고 그들을 설득한다. 이런 가운데 크론스타트의 반란소식이 전해진다. 공장직원들은 군 지도자 헤르츠의 연설에 동조하여 함께 반란세력 진압에 나서기로 한다.
- (3막) 헤르츠는 얼어붙은 겨울바다를 이용하여 진압부대를 섬에 접근하기로 한다. 방어막 없이 노출된 작전이지만 조기진압을 위한 선택인 것이다. 섬 내부에서는 반란 세력 간에 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각자 다른 입장 차이로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한편 철강공장의 여자 노동자 무스자는 변장을 하고 먼저 섬에 잠입하여 진압작전을 돕기로 한다.
- (4막) 무스자와 그녀의 일행은 반란군에 발각되어 댜첸코의 여자 친구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한다. 그러다가 간신히 탈출하는데, 무스자는 수류탄을 터뜨려 성채의 일부를 폭파시키며 장렬하게 그녀의 목숨을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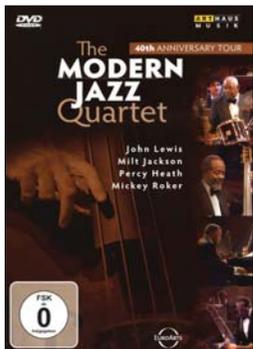
Arthaus DVD 107 033

**모던 재즈 콰테트: 35주년 연주여행**

JOHN LEWIS(피아노)/ MILT JACKSON(비브라폰)/ PERCY HEATH(베이스)/ CONNY KAY(드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의 전설적인 공연실황**

이 DVD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랜 활동을 했던 미국의 재즈그룹 '모던 재즈 콰테트'가 창단 35주년을 맞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전설적인 '첼트-무직페스티벌'에서 공연했던 내용이다. 1952년에 창단되어 같은 멤버로 제 일선에서 활동한 재즈감보로서는 역사상 가장 길게 활동했던 그룹, 실내악적인 온화한 분위기와 세련된 즉흥연주로 감동을 주었던 모던 재즈 콰테트의 활약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소중한 기록물이다. 비브라폰을 연주하는 밀트 잭슨이 뜨거운 열정과 직관적인 연주를 펼치는 반면,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는 이론에 밝고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차분하고 단정한 연주를 들려준다. 베이스와 드럼 연주자들보다는 피아니스트, 작곡가로서의 루이스와 사중주단 핵심 솔로리스트인 잭슨의 맞장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Arthaus DVD 107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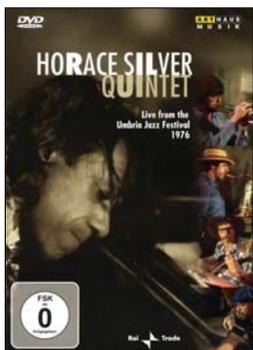
**모던 재즈 콰테트: 40주년 연주여행**

JOHN LEWIS(피아노)/ MILT JACKSON(비브라폰)/ PERCY HEATH(베이스)/ MICKEY ROKER(드럼)

슈투트가르트 아르카타 실내오케스트라

**1992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의 창단 40주년 공연**

이 1992년 모던 재즈 콰테트 40주년 영상물은 1987년 첼트-무직페스티벌 공연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드럼 연주자 코니 케이이 당시 건강이 심각하게 좋지 않아 미키 로커로 바뀌었고,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아르카타 실내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다. 미키 로커는 디지 길레스피를 포함한 위대한 재즈 아티스트와 함께 연주했던 필라델피아의 저명한 드럼 연주자인 만큼 다른 세 명과 완벽한 호흡을 이룬다.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인 존 루이스의 음악은 당시 클래식과 재즈 사이에 흐르는 '제 3의 조류'로 이해되었는데, 이 영상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분명 그의 음악에 대한 찬사였다. 실로 모던 재즈 콰테트 최후의 역사기록물이다. 35주년 영상을 구입하고 이 40주년 영상을 구입하지 않는 일이 가능할까?



Arthaus DVD 107 039

**호러스 실버: 쿼테트**

HORACE SILVER(피아노)/ BOB BERG(테너 색소폰)/ TOM HARRELL(트럼펫)/

STEVE BESKRONE(베이스)/ EDDIE GLADDEN(드럼)

**1976년 움브리아 재즈 페스티벌 실황 : 전율을 느끼게 하는 꿈의 공연**

1954년에 재즈 매니저스를 조직해 활동한 이후 새로 결성한 5중주단, 즉 호러스 실버 콰테트의 감동적인 공연 실황이다. '전도사', '세노르 블루스', '나의 아버지를 위한 노래', '시스터 새디', '나िका의 꿈', '더러운 맥내스티' 등 술한 명곡을 남겼던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인 호러스 실버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호러스 실버는 밤의 무대를 자신의 음악으로 장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위대한 재즈 아티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즉흥연주로 진행되는 재즈공연을 위해 실버는 '작은 악단'을 선호했는데, 이 영상물은 그가 5중주를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자신의 오중주 악단으로 무대와 청중을 완전히 열정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확인하라! 25년이나 된 테이프이지만 TDK는 상당히 훌륭한 질감의 화면을 뽑아냈다. 재즈 전문가나 재즈 애호가들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다큐멘터리다.



월드뮤직 스테디셀러 <여행자의 노래> 선곡자이며 작가, 화가, 음악가이기도 한 다중예술가 **임의진**이 고른 세상의 모든 커피 노래. 아프리카, 북남아메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러시아 대륙과 인도네시아 자바 섬, 동티모르까지 **커피향이 스며든 노래들 총집합.**



Marc Black의 Ooh I Love My Coffee(오! 내 사랑 커피), Lior이 부른 Bedouin song(베드윈의 노래), Donovan이 존경하는 컨트리 가수에게 바친 새로운 버전의 The Mountain(산의 노래)은 보너스 트랙. **올해 최고 품질의 커피 맛 같은 음반, 귀로 마시는 커피 한 잔**

#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http://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30,000개 음반 / 43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http://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110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co.kr



medici  
arts

무지크페라인을 감동의 도가니로 이끈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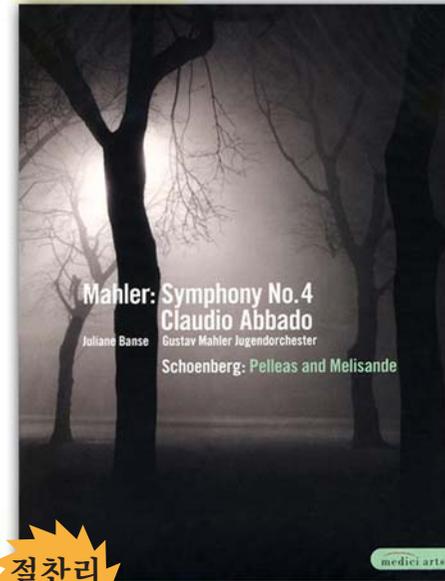
\*말러: 교향곡 4번

\*쇤베르크: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율리안 반제(sop)

클라우디오 아바도

구스타프 말러 유겐트오케스터



절찬리  
판매중

Medici Arts DVD 2055488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DVD 포맷 말러 교향곡 사이클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2006년 4월 빈의 무지크페라인에서의 실황인 이번 4번의 등장으로 이제 1번과 8번 두 작품만을 남겨둔 것이다. 9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말러 유겐트 오케스트라를 기용한 것으로, 아바도가 노구를 이끌고 갈고 다듬어 놓은 이들 젊은 연주자들은 스타급 아티스트들의 집합체인 루체른 페스티발 오케스트라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개인기와 합주력을 이 음반을 통해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아바도 역시 절묘한 다이내믹컨트롤과 섬세한 세부조각을 통해 말러의 교향곡들 중 가장 투명한 텍스처를 자랑하는 이 작품의 묘미를 만족스럽게 표현해 내었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리트와 독일 오페라를 통해 각광받고 있는 정상급 소프라노 율리안 반제의 우아한 가창을 통해 아름다운 천국의 정경이 펼쳐진다. 쇤베르크가 12음기법을 창시하기 이전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완성한 전형적인 후기낭만주의 대작 교향시인 ‘펠리아스와 멜리장드’가 함께 수록되었다. 연주가 끝난 뒤 열렬한 환호와 기립박수로도 모자라 객석의 모든 관객이 함께 발을 구르며 아바도에게 경의를 표하는 감동적인 순간까지도 온전히 수록되었다.



표지사진  
이 달의 주목할만한 DVD

〈아울로스뉴스〉 2009년 6, 7월호  
통권 제 38호 발행 : 2009년 8월 5일  
발행인 : 임용욱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http://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mailto: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